소학생

★ 7월치 ★

선아동문화협회 발행 · 48호

①

어머니
아버지

②

어린이
소학생

③

불타는
愛國熱

④

새야 새야 파랑 새야
녹두 밭에 앉지 마라
녹두 꽃이 떨어지면
청포 장수 울고 간다

⑤

①서울 덕수 학교 3 년 노 영진
②서울 덕수 학교 4 년 윤 효준
③서울 배명 학교 5 년 이 재수

소학생·작품집

④보명 [illegible] 학교 이 [illegible]
⑤서울 성동 학교 6 년 김

소학생

★7 월 치★

차 례

동화·눈 뜨는 봄……[illegible](4)
동화·세 가지 소원……(6)
동화·어디가 가까운가……(6)
동화·작은 말을 사서……(7)

동화·나는 개구리……윤 석중(12)
동화·생일날 풍에……마 해송(10)
동화·모자의 실패……(18)
동요·서울 구경……[illegible](10)
동요·하늘에 별빛……[illegible](21)
소설·곡마단의 비밀……[illegible](8)
소설·비슷한 얼굴……박 태원(25)

★아이들의 세계……[illegible](20)
★새와 이야기……[illegible](30)
★우리 자랑 주기……[illegible](13)
★기상에 관한 말……[illegible](27)

식상도하사·[illegible]……(18)
동물원 구경……주 요섭(14)
그림 속합……(17)
조선 풍속·조선과 상이……(28)
○어린이 새소식……(31)
○새로 나온 좋은 책들……(33)
○소학생 작품집……(8)
○새로 된 표가……(45)
현상 작문·동요 발표……(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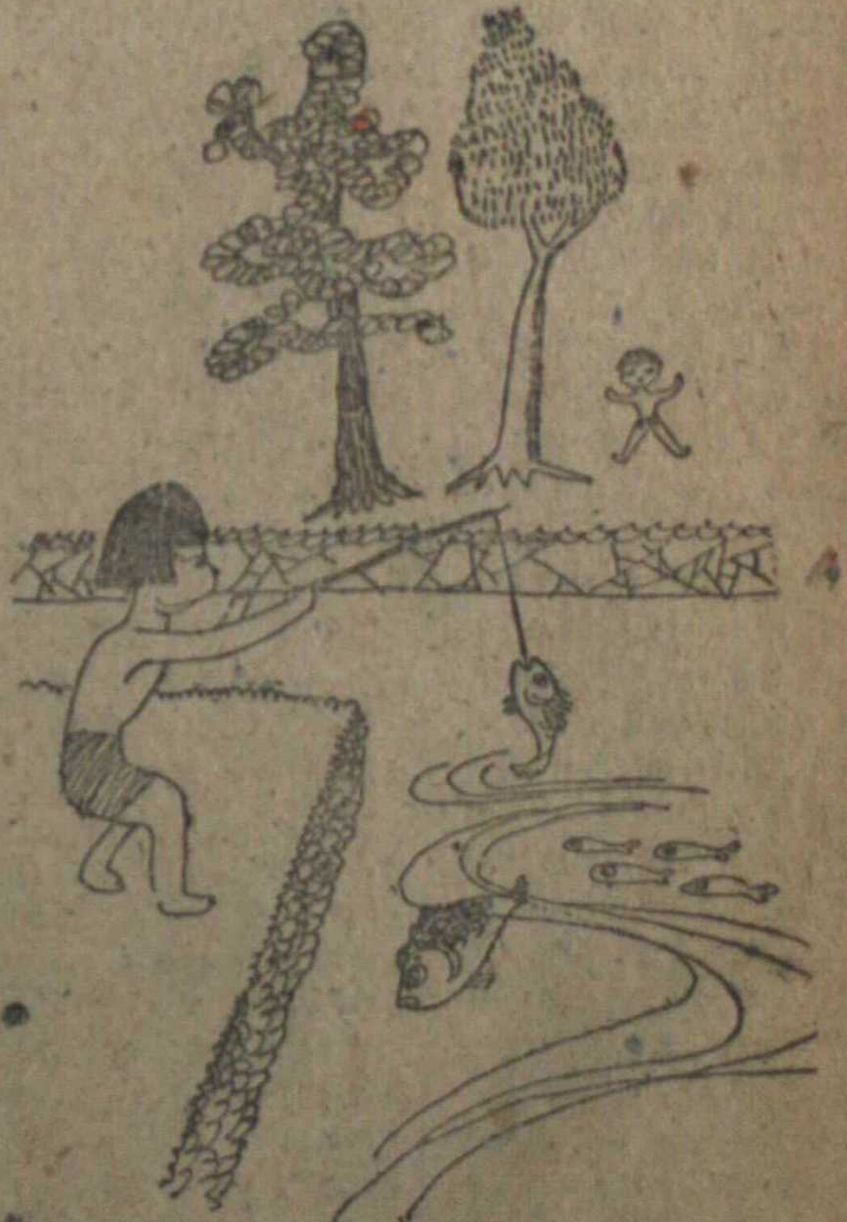
과학 이야기

새와 원숭이 박제……(5)
장소와 입소……(14)
두 바다의 개구리……(25)
인체질에 관계……(4)

그림·필주의 세계……(17)
응답 처표(27) 이런 일 실상(21)
일러의 빈 차변(37) 소원 지식(39)
말 풀이기 ★소학생 구락부(40)
크로스워드풀기·풀어보기……(15)
크로스워드풀기·새 문제……(39)
무서운 김수 ★ 웃기 내기……(13)
만발 박사 ★ 척척 박사……(10)
만화……(41) 만들고 나서……(40)

★그림 그리신 분★

김 의환·정 현웅·김 [illegible]
조 병덕·김 기창·최 [illegible]
표지……김 용준



중국 옛날 얘기

눈 없는 용 청 사

옛날 금릉(金陵)이란 땅에 안락사(安樂寺)라는 절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매우 훌륭했으므로, 금릉을 찾아 간 사람은 누구나 이 절을 구경하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절에 구경 온 사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 승요(張 僧繇)라는 유명한 화가(그림 그리는 사람)였습니다.

승요는 절을 한 바퀴 돌아 보고 나서, 깨끗하고 조용한 것이 몹시 마음에 들었든지, 그 길로 절의 주지(住持)를 찾아 좀 여러 날 묵어 가며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주지는 그렇게 하라고 승낙하였습니다.

승요는 한동안 절에 묵고 있었는데 이윽고 싫증이 났든지, 또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든지, 어느 날 큰 붓을 들어 먹을 흠뻑 찍어 가지고는 절 벽에 대었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하니, 네 마리의 용(龍)을 그리었습니다. 이 용들은 아가리를 딱 벌리고 발톱을 번쩍 곤은, 마치 살아 있는 것과 같은 그림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본 여러 사람들은 용 그림이 살아 있다고 크게 감탄하며 삽시간에 이 소문이 퍼지어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이 구름 같이 모여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경군 중에 한 사람이 그림을 한참 바라보더니,

"흥, 이 그림의 용에는 눈을 그리지 않았구먼, 승요는 유명한 화가인 줄만 알았더니, 눈 없는 용을 그리다니."

하고 핀잔했습니다.

그러자 같이 보고 섰던 사람들도 그 말을 듣고,

"따는, 눈을 안 그렸구먼. 너무 급하게 그리느라고 정작 중한 것을 빼 먹었네 그려."

하고들 웃었습니다.

마침 그 때, 주지는 부처님 앞에서 경을 읽다가 그림 있는 데로 왔습니다. 그리고 구경군들이 떠드는 것을 듣고 있다가 천천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 분 조용들 하십시오. 장 선생의 그림은 전체 훌륭합니다. 이것도 반드시 무슨 까닭이 있을 겁니다. 여러 분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장 선생을 이리로 모셔 와서 까닭을 묻기로 합시다."

주지의 말을 듣고는 모두들 그렇게 해 보자고 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승요가 불려 왔습니다.

구경군 중에 한 사람이,

"장 선생께서는 어찌하여 네 마리 용에 눈을 그리지 않으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승요는 싱글벙글 웃으며,

"이 네 마리 용에다가 눈을 그려서는 안 됩니다. 만일 눈을 그렸다가는 용이 구름을 불러서 비를 일

으키고 당장에 날아 가고 말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러 사람은, 화를 내면서,

"우리들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어느 천지에 그림이 뛰어 나와 도망 가는 일이 있답디까?"

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승요는 한참 말 없이 서 있더니,

"알겠소이다. 정 여러 분이 못 믿는다면 눈을 그리기로 합시다. 그러나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는 모르나 그런 줄 아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구경군들은 쓴 웃음을 웃으며,

"어쨌든 용을 날려 보내주십시오. 무슨 일이 나든지간에."

하고 재촉하였습니다.

"잘 알았소이다."

승요는 붓을 들고 한 마리 용에 눈을 그리었습니다. 그러나 용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구경군들은 픽 웃었습니다.

승요는 둘째 용에도 눈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 마리째 눈을 그리려 할 때였습니다.

지금까지 환하게 비치던 해가 갑자기 흐리며 어두워지더니 난데없이 거센 바람이 일어나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며, 하늘이 무너져라 하고 뇌성 번개가 일어났습니다.

그 큰 안락사가 와지끈와지끈하며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았습니다. 구경군들은 너무나 무서움에 벌벌 떨며 부처님만 외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바람이 자고 비가 멎었습니다.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던 구경군 속에서 한 사람이 머리를 들었습니다.

"어이구 저런!"

벽 위에는 분명하고 있었던 네 마리의 용이 두 마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눈이 없는 두 마리만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승요가 눈을 그린 용 두 마리가 참말로 어디론가 날아 간 것이었습니다.

이솝 이야기 새와 짐승과 박쥐

옛적에 새와 짐승이 두 패로 갈라져서 싸움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다. 새와 짐승과 어느 쪽에고 길 수 있는 박쥐는, 싸움터에서 멀찍히 떨어져서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짐승이 이길 듯이 되었습니다. 박쥐는 짐승 편에 붙어가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 때에는 새들이 다시 기운을 내어 이길 듯이 되었습니다. 박쥐는 얼른 새 편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서로 화해했습니다. 새들은 박쥐의 교활한 태도를 비난했습니다. 짐승들 속에서도 그것을 미워해서 한편에 넣어 주지 않았습니다. 박쥐는 부끄러워서 살짝 도망했습니다. 박쥐는 그날부터 나무굴 속이나 어둑컴컴한 지붕밑에 숨었다가, 해가 져서, 어둑어둑하면 몰래 그 근방을 날아 다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소원★

어느 곳에 가난한 형제가 살아 있었습니다. 부자가 맛난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부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하는 것이 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신선이 나타나서 형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세 가지만 소원을 말해 봐라. 내가 들어 주마."

형제는 그것을 듣고는, 무엇을 바랄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겨우 세 가지밖에 소원을 들 수 없다는 것이니까 좀 생각해 볼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신선에게,

"내일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껏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아우가 이웃집에 먹을 것을 얻으러 가본즉, 그 집 부엌에 먹음직스러운 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우는 집에 돌아 와서,

신선의 말은 잊어 버리고,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떡이 먹구 싶어, 아주 맛있는 떡."

아우가 이 말을 채 다 하지도 않았는데 눈 앞에 떡 한 개가 번쩍 떨어졌습니다.

언니는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에끼 못난놈 같으니라구, 벌써 소원 하나를 들은 셈이 되었구나. 떡 한 조각이 다 뭐야, 그런 건 네 코에나 붙이고 다니라."

이렇게 말한즉 떡은 선뜻 아우의 코에 딱 붙어 버렸습니다.

언니는 할 말이 없이 입만 딱 벌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 떡을 코에서 떼어야지 이거 큰일 났어."

하고 울상이 되어 아우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떡은 코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것으로 두 사람의 세 가지 소원은 다 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은 여전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디가 가까운가

옛날, 어떤 나라에 아주 썩 똑똑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의 이름은 도기(道機)라 하였습니다.

도기는 대여섯 살 때부터 그 아버지와 여러 가지 문답(묻고 대답하는 것)을 해서 늘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장안(長安)이라는 곳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왕은 왕자의 꾀를 한 번 시험해 보자는 것으로,

"도기야, 한 번 생각해 보구 대답해라. 저 햇님과 장안과 어디가 더 멀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도기는 곧 대답했습니다.

"그건 햇님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건 또 어째서 그렇단 말이냐?"

고, 왕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장안에서 왔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햇님한테서 왔다는 사람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햇님이 훨씬 먼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왕은 그 말을 듣고, 참 그런듯하다고 찬탄하였습니다.

이튿날, 왕은 손님을 청해 왔습니다. 여러 신하들과 손님 있는 데서 한번 보기의 똑똑한 것을 자랑하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윽고 보기가, 왕 앞에 나아간즉 왕은 어제와 같은 것을 물었습니다.

"햇님과 장안은 어디가 머나?"

보기는 천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햇님이 훨씬 가깝지요."

이 말을 듣고 왕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아마 여러 사람 앞이라 말이 헛 나온 것이구나 하고, 보기에게 알아 듣도록,

"너는 왜 어제와 대답이 다르냐?"

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보기는,

"저 하늘에 있는 햇님을 보세요. 햇님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여기서 장안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햇님이 훨씬 가까운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보기가 참으로 똑똑한 왕자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오백 금을 주고 죽은 말을 사다

옛날, 중국에 한 왕이 살았습니다.

이 왕은 말을 대단히 좋아하였는데 도무지 마음에 드는 좋은 말을 구하지 못한 것이 늘 안타까왔습니다. 그러하여 어느날, 신하를 불러 천 금을 주고, 단숨에 천리를 달릴만한 말을 사 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이 때의 천 금이라는 것은 요새로 치면 몇 십만 원이였습니다)

신하는 곧 천리를 단숨에 달릴 말을 찾아서 온 나라를 돌아 다녔으나 3 년이 지나도 그런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굉장히 훌륭한 말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신하는 기뻐하여 찾아 가 본즉, 말은 조금 전에 죽어 버렸다고 합니다. 신하는 아무 말도 않고 그자리에서 오백 금을 내고, 그 죽은 말을 사 가지고 곧 왕에게 바치었습니다.

왕은 죽은 말을 보자마자,

"이 어리석은 놈아, 나는 산 말을 사오라 했지 죽은 말을 사 오라 했느냐? 더군다나 오백 금이나 주고서."

하고 크게 노했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는,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죽은 말 값이 오백 금이나 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이 여기 저기 퍼진다면, 임금님께서는 훌륭한 말이라 하고 오백 금이나 내서 죽은 말을 사셨으니까 훌륭한 말로 산 것이라면 얼마나 돈을 내실까, 하고 세상 사람은 떠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 찾으시는 천리마는 힘 안 들이시고 구해질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임금은 그런 뜻한 말이라고 오히려 신하를 칭찬하였습니다.

과연, 그 뒤 여기저기서 훌륭한 말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한 1 년도 못 되어서 단숨에 천리를 달리는 말이 세 마리나 들어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五百金買死馬"라 하여 중국에서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장편 모험 소설

곡마단의 비밀

북 극성 지음
정 현용 그림

> 이달서부터 연재하는 장편 모험 소설 "곡마단의 비밀"은, 지금으로부터 20 년 전 방 정환 선생이 편집하시던 "어린이" 라는 잡지에 실렸던 것입니다. 부모를 잘 모르는 조선 사람의 오뉘가 잔악한 일본 사람 곡마단 주인과 싸우느라고 서울과 중국을 헤매며 다니는 기구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소학생" 독자 여러분 앞에 다시 새 생명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
> 이야기는 20 년 전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
> (편 집 부)

1. 곡마단의 오뉘 꽃

여러 가지 꽃들이 만발하여서 온 장안 사람이 꽃에 취할 때였습니다.

서울 명동 진고개 어구에는 며칠 전에 새로 온 곡마단의 재주가, 서울 왔다 간 곡마단 중에 제일 재미있고 제일 신기하다 하여, 동물원 구경보다 더 많은 사람이 낮과 밤으로 그칠 사이 없이 몰려 밀려서 들어 가지 못하고 도로 돌아 가는 이가 더 많을 지경이었습니다.

이 곡마단의 단장은 일본 사람 내외이고, 재주 부리는 사람도 모두 일본 사람인데, 그 중에는 중국 사람 내외가 한 패 끼어 있을 뿐이고…… 이 곡마단이 일본과 중국으로만 돌아 다니면서 돈벌이를 하다가, 조선에 와서 재주를 부리기는 이번이 처음인 고로, 서울 있는 사람들에게는 참말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재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가 쾌관로 변하여 춤을 추는 것도 재미있었고, 조그만 원숭이와 커다란 사자가 재주를 부리는 것들도 모두 처음 보는 재미있는 것이고, 중국 여자가 접시 돌리는 것이며, 그 남편이 가슴을 벗고 누워서 가슴 위에 큰 돌을 올려 놓고, 그 위에 큰 사람 일곱 사람을 올려 세우고도 그리고도 말 끝으로 재주를 부리는 것도 참말로 신통한 구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자보다도 중국 사람보다도 더 구경군의 마음을 끄는 것은, 말등 위에서 재주를 부리는 15, 6 세의 소년 한 사람과, 가느다란 쇠 줄 위에서 무도를 하는 13, 4 세의 예쁜 소녀였습니다.

얼굴 곱고 몸 가벼운 소년이 시뻘건 불 속으로 뛰어 들어 가는 말등 위에서 가지 가지의 아슬아슬한 재주를 피우는 것이며, 예쁘고 귀여운 소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높다란 철줄에서 우산을 펴 들고 여러 가지 서양 춤을 추는 것은 참말로 구경군의 가슴을 조리는 재주여서, 보는 사람마다 손에 땀을 흘리면서 아슬아슬해 하였습니다.

그러나 맨 나중에 그 "한 남매"라고 하여도 좋음직한 소년과 소녀가 함께 나와서

까마득하게 높이 매달린 두 개의 그네 위에 올라 가서, 원숭이 같이 재주를 부리다가 공중을 후루룩 날아서 이 그네 저 그네로 옮겨 뛰는 재주——그거야 말로 수천명 구경군의 가슴을 헤여는, 귀신 같은 재주였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그 높은 그네에서 내리 떨어져 즉사하고야 말 것 같은데, 그 높은 곳에서 그네를 놓고 공중으로 후루룩 날 때 부인네와 어린 사람은 차마 보지 못하여,

"악! 악!"

부르짖으며 얼굴을 숙이고 손으로 눈을 가리었습니다.

그러나 실수 없이 약삭빠르게 저편 그네에 옮겨 매달려서 새로운 재주를 피울 때, 구경군들은 미친 사람들 같이 기뻐 날뛰면서,

"오아!"

소리와 손벽 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어린 남매 같은 소년 소녀의 재주! 소문은 가는 곳마다 퍼져서 아침때부터 저녁때까지 구경군들은 물밀 듯이 몰려 오는 것이였습니다.

2. 슬픈 신세

하루도 몇 천 명 손님에게 칭찬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귀염을 받고 떠받들리는 나이 어린 소년과 소녀, 손벽 소리 속에서만 춤추는 소년과 소녀, 가는 곳마다 몇 만 명 시민이 자기네 재주를 바라고 모여 들건마는……그들의 마음은 더 할 수 없이 슬펐습니다.

소년은 열 여섯 살이였습니다. 소녀는 열 세 살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에게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고, 고향도 없고,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였고, 어머니는 누구였었는지……자기의 고향은 어디였었는지, 그런 것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곡마단의 단장 내외를 아저씨 아주머니 하고 부르면서, 하루도 몇 번씩 피가 흐르게 두들겨 맞으면서 여러 가지 재주를 배워 온 신세였습니다.

남들이 하는 말 같이 소녀와 소년은 친남매 친동생인지……어디서 뿔뿔이 얻어다가 남매 같이 길리우는 몸인지……그것도 분명히 알지 못하는 가여운 신세였습니다.

친남매가 아니라도 좋다! 이 넓은 세상에 부모도 형제도 없는 몸이니, 우리 두 사람끼리나 친오빠 같이 친누이 같이 믿고 지내자고 밤마다 울면서 밤마다 맹세하면서 지낼 뿐이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고향조차 없으니, 두 아이는 아무 데를 가도 반가운 곳이 없었습니다. 조선에, 오거나, 중국에를 가거나, 아무데 가서 아무런 사람을 보아도, 두 아이는 혼자서 마음이 슬플 뿐이었습니다.

제주가 끝나고 옷을 갈아입고 음악대 뒤에 숨어 앉아서, 흩어져 나가는 구경군을 볼 때, 자기 같은 어린 소년 소녀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돌아가는 것을 보는 때마다, 그들은 돌아 서서 울지 않는 때가 없었습니다.

3. 이상한 노인

조선의 봄 더구나 서울의 봄은 아름다왔습니다. 밖남산(外南山) 망월대의 복숭아꽃, 장춘단의 개나리, 서강 건너와 청량리의 수양버들, 보는 곳마다 좋다고, 곡마단 사람들은 틈마다 떼를 지어 돌아 다니건마는, 이 곡마단의 왕이라 하여도 좋을 두 아이는, 오늘도 아침 밥을 먹고 곡마단 빈 자리에 심심히 앉아 있었습니다.

단장 내외는 여관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꽃구경 나가고, 중국 사람 내외와 심부름군 조선 사람 두 사람이 거적 위에 누워서 낮잠을 자고 있을 뿐——오정 때가 되어야 모든 사람이 돌아 오고, 구경군도 몰려 오기 시작할 판이었습니다.

빈 집 마당에 낮잠 자는 강아지 같이 쓸쓸하게, 심심하게, 나른하게, 4,5 인이 있을 때, 이상한 조선 노인 한 분이 곡마단 포막 앞으로 찾아 들어 왔습니다.

머리는 반이나 희끗희끗하고, 옷은 몹시 추비하고, 신발이라고는 다 떨어진 고무신을 이리 꿰매고 저리 꿰매서 간신히 발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가 어슬어슬 들어 오는 것을 보고, 심부름하는 조선 사람이,

"아직 구경 없어요. 있다가 점심 잡숫고 오세요. 있다가 와요."

하고 일렀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은 그 말은 들은 체도 안하고 물그러미 보고 있는 두 외남매에게로 왔습니다.

"이애야, 너희가 조선 아이 아니냐?"

"너희를 보고 할 말이 있어서 찾아 왔다."

"내 말을 못 알아 듣겠니?"

하고 여러 가지로 물었으나, 소년과 소녀는 처음 온 나라이라, 조선 말을 한 마디도 알 까닭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만 깜박깜박하다가, 소년이 언뜻 심부름군을 불러서 노인의 말을 일본 말로 통역하여 달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노인과 소년은 이야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네가 혹시 조선 사람이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도 모르고, 고향도 모르고, 곡마단에서만 자랐으니까요. 나라도 모릅니다."

어쩐지 슬픔을 머금은 대답을 듣고, 노인의 눈은 이상스럽게 빛났습니다.

"오오, 그럼 분명하다. 분명히 너희가 조선 사람이다. 네 나이가 올해 몇 살이냐? 열 여섯 살이냐? 열 일곱 살이냐?"

"저는 열 여섯 살입니다."

노인은 펄적 뛸 듯이 신통해 하면서,

"옳지, 열 여섯 살. 그럼 정말 분명하다. 네가 분명히 상호다. 상호야."

노인은 어찌할찌를 몰라 하면서, 다시,

"그럼 저애는 올해 열 네 살 아니냐?"

"예, 열 네 살이올시다."

"오오, 옳다, 옳다. 순자다, 순자야. 너희 남매를 한꺼번에 만날 줄을 몰랐다!"

하면서, 노인의 눈에는 벌써 눈물이 괴었습니다.

"예, 남매여요? 저희 둘이 친남매입니까? 노인께서는 누구십니까?"

소년과 소녀의 피는 일시

께 많이 늙었습니다. 정성의 소원이 지금 이루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흡집이 내 쌓는 듯한 눈으로 노인의 얼굴을 쏘아 보았습니다.

"오냐, 이야기하마. 너희는 내 누이의 아들이오, 딸이다. 나는 너희의 외삼촌이다. 그런데 네가 세 살되고, 저 애가 두 살될 적에 너희 부모가 서울서 너희 남매를 잃어 버렸단다. 그 때 나는 시골 살았었던 고로, 편지로 그 소식을 듣고, 곧 서울로 올라와서 너희 부모와 같이 너희를 찾느라고 애를 썼으나 어디 찾을 수가 있더……영영 찾지 못하고 그만 너희 어머니는 실화병이 나서 이내 돌아 가시고, 그 후에 너희 아버지는 홧김에……"

말이 그치지도 않은 그 때에 만장 내외가 발채기을 들고 들어 오다가 이 꼴을 보더니, 무슨 큰 변이나 난 것처럼 내외가 다 얼굴 빛이 변하였습니다.

"누구야, 나가, 나가!"

소리 지르면서 노인의 등을 떠밀어 조막 밖으로 내어 쫓고는, 다시 들어 오자마자 채찍으로 말 잡기 듯 소년을 후려 갈겼습니다.

"요놈의 자식아, 뭐 여기 와 있어?"

가늘고 길다란 채찍은 독사뱀 같이 소년의 몸을 휘휘 감았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채찍이 닿았던 곳마다 대미

로 손 꽂이고 모두 피가 맺히고 퉁퉁하게 부어 올랐습니다.

소녀는 만장 마누라의 손에 머리채를 휘어 잡히어 그가 휘젓는 대로 이리 쏠리어지고 저리 끌고 하면서 아픔을 못 참아 소리쳐 울었습니다.

그 날로 만장의 명령이 내려 곡마단은 문을 닫아 버리고, 조막 집을 허물어 헤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서울에서도 앞으로 열흘이나 더할 예정이었지마는, 웬일인지 올 시에 끝을 맺고 부랴부랴 짐을 만들어서, 한 시라도 속히 서울을 떠나 중국으로 간다는 명령이 있습니다.

4. 새로운 걱정과 설움

자기의 몸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그것도 모르고 자란 신세 불쌍한 곡마단의 소년과 소녀! 열 여섯 살 되고, 열 네 살 되는 이 봄에 조선에 왔다가 이상한 조선 노인을 만나,

"너희가 조선 사람이다"

는 것과,

"너희 두 사람이 친오라비 친누이다"

는 말과, 부모의 소식을 듣게 되자, 친수된 곡마단 임자 내외에게 들키어, 다시는 만날 수도 없게 떼어지게 된 것을 생각하면, 우리 두 사람의 팔자는 왜 이다지도 불행한가 하여 생각할수록 가슴은 설움으로 저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도 끝이 없이 맞았던지 소년의 몸에는 멍이나

구렁이가 칭칭 감긴 것 같이 채찍 자국이 빨갛게 부어 올랐고, 소녀는 휘어잡혀 휘둘린 머리가 칼로 저며 놓은 것 같이 아프고, 온 몸에 교질히 돋친 자리가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아무리 아파도 관계치 않으니 다시 한 번 떠나기 전에 그 외삼촌이라는 노인을 잠간만이라도 만났으면 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아아, 자기의 근본을 알고, 본국을 찾고, 부모를 찾고……그것이 우리들 평생의 소원이 아니었던가? 오늘 죽는다 하여도 한탄이 없으니, 내 부모 내 본국을 알아보겠다 한 것이 꿈에도 잊지 못하는 소원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제 조선에 와서 뜻밖에 외삼촌을 만나, 부모의 소식을 듣다가 못 듣다니……아아, 이렇게까지 악착한 팔자이면 차라리 죽어나 주소서. 죽어나 주소서……입속으로 부르짖으며 원망스러이 허공을 쳐다볼 때에, 그들의 눈에서는 뜨거운 뜨거운 눈물이 샘물 같이 흘러 내렸습니다.

그 노인의 말이 정말이라 하면 분명히 자기들은 조선 사람이요, 친오라비요, 친누이요, 이름은 상호와 순자요, 그리고 그리고 어머니는 자기네 남매를 찾지 못하여 화병으로 돌아 가신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는 어찌 되셨을까? 돌아 가셨을까? 살아 계실까……노인의 말씀은 마침,

"너희 아버지는……"

하다가 그치고 말았으니, 노인을 다시 만나기 전에는 아무래도 아는 수가 없었습니다.

노인을 만나야 하겠다! 노인을 만나야 하겠다! 마음 속으로 부르짖으나 그러나, 단장은 내일 아침으로라도 이곳을 떠난다고 부랴부랴 포막 짐을 허물어서 짐을 싸는 중이니, 무슨 수로 이 넓은 서울 천지에서 그 외삼촌이라는 노인을 [illegible]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해는 벌써 어두워 가는데, 이 밤만 지내면 내일 아침에는 처음 보는 고향을 또 떠나서, 정처 없이 끌려 갈 생각을 하니 가슴이 바위에 눌리는 것 같이 점점 무거워질 뿐이었습니다.

"대체 조선 노인과 이야기 좀 하기도 단장이 무슨 일로 그다지 싫어 할까요?"

"글세 말이요. 무슨 큰 변이나 난 것처럼 야단이니 이상한 일이어요."

소년과 소녀는 가늘고 힘없는 소리로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그래, 그까짓 일로 벌을 이나 더 할 흔벌이로 숭지하고, 오늘로 포막을 일어서 짐을 싸는 것을 보면, 반드시 무슨 큰 까닭이 있는 것이 분명해……"

소녀는 근심스런 소리로,

"무슨 까닭일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글세, 무슨 까닭인지 그것은 몰라도, 어쨌든지 우리 두 사람과 조선 사람과 만나기만 하면, 큰 일이 생길 일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 않으냐? 그러니까 우리 둘의 몸이 이 곡마단에 매어 있는 것이 위험한 일인 것 같이 생각 되는구나……"

"글세요. 점점 마음이 무시무시해져요."

어쩐지 자기들 어린 몸이 무서운 무서운 비밀을 가진 흉한 놈들의 손에 쥐어 끌려 다니는 것 같아서, 새로운 불안스런 마음이 아버지 그리우는 설움과 함께 그들의 가슴에 가뜩 찼습니다.

그리고 지옥 속에 빠진 것 같이 무서운 어두운 밤이 차츰차츰 그 집과 그 마음을 덮어 갔습니다.

(다음 달치를 기다리십시오)

이솝 이야기 **황소와 염소**

어느 날 황소가 사자에게 쫓겨서, 어느 굴 속으로 숨었습니다. 그 굴에는 염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염소는 심이 나서 뿔로 받으려고 덤벼 왔습니다. 그러나 황소는 꼼짝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까짓게 무서워서 그러는 줄 아니? 사자가 없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라. 소와 염소와 누가 센가 보여 줄 테니……"

서울 구경

권 태 응

아기가, 아저씨 얘길 듣고서
서울 구경 시키라고 떼를 썼지요.
요담에 크거든 시켜 준대도
자꾸만 매달리며 떼를 썼지요.

아저씨가, 그만 할 수 없어서
"그래, 구경 시켜 주마." 대답 했지요.
아기 두 귀에다 손을 대고는
번쩍 들면서 "보이니, 보이니?"

(그림 • 길 진섭)

피와 땀으로 된

만리 장성

윤 균

중국은 그 넓이가 조선보다 수십 배나 큽니다. 그렇게 큰 나라인만큼 여러 가지 규모 크게 만들어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도 북쪽에 "만리 장성"이라고 하는 이상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길이가 1만 리나 뻗어 있는 성(城)입니다. 여러 분 지도를 펴 보십시오. 관동주(關東州) 서쪽 해안에 산해관(山海關)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만리 장성"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 중국의 도읍인 북경(北京) 근처를 지나서, 쭉 서쪽 편으로 높은 산 봉우리에서 또 산 봉우리를 따라 가욕관(嘉峪關)이라는 곳에까지 그 높은 벽이 병풍을 세운 것처럼 주욱 연이어 나갔습니다. 그 길이는 7천 리나 되는데, 가령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3천 리라고 치고, 따져 보면 그 길이는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왔다 갔다 해도 모자랄만한 길이가 되는 셈이지요. 그 외에 또 "만리 장성"은 여러 지선(支線)과 복선(複線)이 있어서 전부 합하면 1만 5천 리 이상의 길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철도의 선로 같은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순전히 커다란 벽돌로만 쌓은, 높이가 6메타부터 9메타, 두께가 4메타 반부터 7메타 반이나 있어 퍽 튼튼한 성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15메타 이상의 높이로 3층, 4층으로 네모진 커다란 "빌딩"(高層 建物) 같은 성의 노(櫓)가 만들어 있습니다. 그 수효가 2천 5백

이라 하니까, 적어도 5 미터에 한 군데씩은 이런 것이 있는 셈이지요. 그리고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성 위는 으칫이 자동차라도 달음질할 수 있게 평탄하고 양편에는 사람 키만한 담이 쌓여 있습니다. 왜 옛날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만들었을까? 대체로 중국에서는 누가 어느 때 무엇 때문에 이런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성이니까 다른 나라와 싸움을 할 때, 적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정말 싸움이 시작되면 많은 병정들이 그 위로 뛰어 올라 와, 가지런히 그 벽에 따라서 차례 차례로 서게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벽에는 구멍이 있지 않습니까? 즉 그 구멍으로 적(敵)이 밀어 닥쳐 오는 것을 내다 보고 적을 막아 냅니다. 참 편리하게 되었지요. 그것이 다 만들어진 것은 2천 2백 년이나 멀고 먼 옛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부터 약 3백 년이나 전에는 공자(孔子) 같은 성인(聖人)이 탄생하는 등, 중국은 문물이 꽤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때는 진(秦) 나라이고 황제를 시황(始皇)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작은 나라의 왕이었었는데, 점점 다른 나라를 합하여 그 때 혼란되어 있는 나라를 모두 자기 것으로 해 가지고, 진(秦)이라는 커다란 나라를 세워, 자기가 그 맨 처음의 황제가 되어, 진의 시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북쪽에는 아직 발달되지 않은 성미 거친 사람들이 많아서, 늘 쳐들어 오기 때문에 잘 세워 논 진 나라가 위태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황은 여러 사람들을 시켜서 북쪽의 오랑캐(야만인)가 쳐들어 오지 못하게 백성들에게 튼튼한 성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몇 십만 인의 사람들이 여기 모여 가지고 벽돌을 굽는 등, 그것을 나르는 등, 모아다 쌓는 등, 자꾸자꾸 이런 것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만드는데 수 십년 걸렸고, 어느 곳에서는 한 겹으로는 좀 위태해서 두 겹 세 겹으로 쌓은 데도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큰 대포가 있고, 비행기에서 폭탄을 내던지기도 하니까, 이런 것으로는 싸움에 조금도 소용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2천 년 이상이나 먼 옛날에는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성이어서, 이 성이 되고 나서는 그렇게 성미 거친 북쪽의 적도 이 장성을 넘어 올 수가 없었습니다. 진의 시황은 이 장성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백성을 괴롭혔으며, 또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 옛날 학자가 써 놓은 책을 전부 태워 버리는 등, 많은 학자들을 굴 속에 파묻는 등, 참으로 혹독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만리 장성"은 지금도 거의 그전 그대로 남아 있어 우리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48 페이지

척척박사 대답

①일곱.
②고무 밑된 신발.
③물구나무를 서면 된다.
④연기와 수증기.
⑤8=9.
⑥죽순.
⑦동, 서, 남, 북.
⑧세 사람이 과수 숲에 앉고 공평하게 앉으면, 한 사람이 두 개씩 된 것이 된다.

어린이 한글 역사 ⑫

한글의 보급

이 영 철

한글 보급 운동에 공헌한 단체는 기독교와 각 신문사입니다.

우리 나라에 기독교가 선교와 ... 함께 들어 온 것은, 1884 년이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교육, 의료 기관을 통하여 우리 사회에 이바지함이 컸는데 그 중 한글 보급 운동에 큰 공적을 끼쳤습니다.

그들은 ... 보급하기 위하여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고, 성경을 가르치기 위하여 한글을 가르쳤으며, 한문만 숭상하던 그 그릇된 생각을 깨뜨려 주었습니다.

글 모르기가 ... 하거나 ... 아니라고, 마침내 기독교를 통하여 그 장벽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가난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무식한 사람에게 사랑, 동정을 베푸는 종교이므로, 일부 선비들의 독점적인 한자를 버리고 대중적인 한글을 채용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한글 성경이 조선 13 도 방방곡곡에 퍼져서, 그 동안 성경 팔린 부수가 2,000만이며 하여 한글 보급에 큰 공헌을 한 기독교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는 주일 학교와 하기 아동 성경 학교를 통하여 한글을 보급시켰습니다.

다음에 신문사 주최의 문자 보급 운동에 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선 일보사, 동아 일보사에서는 1931 년부터 시작하여 제 4 회인 1934 년으로 끝마치게 되었는데, 중등 정도 이상의 학생을 동원시켜 그 하기 휴가를 이용하여 각 지방에서 한글 강습회를 개최하게 하고, 그 교재는 신문사에서 전부 제공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네 해 동안에 문맹 퇴치의 수가 10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

1. 원숭이

주 요 섭

창호의 외삼촌이 오래간만에 찾아 왔습니다. 창호는 이 키 크고 얼굴도 크고 어깨도 큰 젊은 사람을 통 기억이 도무지 없지만 그 이는 창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창호가 아직도 어머니 젖을 먹을 시절에 업어도 주고 안아도 주었노라고 하였습니다. 밤에 저녁을 먹고 집안이 다 모여 앉아서, 외삼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외삼촌은 자기가 다녀 본 여러 나라의 이상하고 신기한 이야기를 재미있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밤이 늦도록 창호와 옥미와 옥수 세 오뉘가 졸린 눈을 껌벅거리며 가면서 외삼촌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니까, 어머님과 외삼촌이 이튿날 일요일 동물원에 구경을 데리고 간다고 약속을 하여서, 겨우 세 아이들을 자리에 눕게 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새벽부터 서둘러서, 아이들 세수를 시켜 준다, 새 옷을 입혀 준다, 점심을 싼다 하느라고, 제가 거의 한나절이나 되어서야 동물원에를 도착하였습니다. 온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외삼촌, 이모, 그리고 창호, 옥미, 옥수, 이렇게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원숭이를 보러 갔습니다. 창호와 옥미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저것 봐 저거" 하고 소리를 지르며 좋아하였으나, 옥수는 외삼촌 새끼 손가락을 꽉 쥔 채로 놓지 않고,

"난 저기 저 조그만 원숭이가 좋아"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지, 저 조그만 원숭이들이 보기가 좋지. 코 반짝거리는 눈과 얼굴이 꼭 사

람처럼 생기지 않았니? 더구나 이 원숭이들이 어떻게도 영리한지 내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주인의 담뱃불을 붙여 주는 원숭이도 있고, 책장을 첫 장으로부터 끝 장까지 한 장도 건너 뛰는 법이 없이 뒤져 놓을 줄 아는 놈도 있고, 또 요놈들이 음악을 참으로 좋아 하거든……"

"삼촌, 저것 좀 봐요. 저 원숭이들이 사닥다리에서 저렇게 꼬리들을 놀리고 있는 걸 봐요. 저 꼬리가 엉키어서 어느 게 어느 놈의 것인지 모르지 않아요?"
하고 옥미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저것 보아라. 벌써 다 풀려 나가지 않았니? 에프리카나 인도 같은데 있는 원숭이는 그 꼬리를 잘 이용할 줄 모르지만 아메리카 원숭이는 그 꼬리를 어떻게도 유용하게 쓰는지, 마치 손 발처럼 놀린단다. 꼬리를 나무 가지에 걸고 늘어져서 건너도 뛰고, 손처럼 물건을 붙잡기도 하고, 브라질이란 나라의 원숭이는 꼬리로 물고기도 잡아 먹는다고 하지만, 설마 그거야 웃음의 소리겠지. 추울 때에는 꼬리를 끌어다가 여자들이 여우 꼬리를 몸에 감는 모양으로, 몸에 감기도 하는데, 원숭이 이름을 그 꼬리 모양을 보아 지어 부르는 수도 있으니, '돼지 꼬리 원숭이'니, '사자 꼬리 원숭이'니, '다람쥐 꼬리 원숭이'니 하고 부른단다."

이 때 웬 일인지 원숭이 한 놈이 찍찍 소리를 내면서 실랑을 하고 달아나고, 한 놈이 따라 가고 하더니, 두 놈 다 한 곳에 가 앉아서 한 놈이 다른 놈의 털을 손톱으로 헤칩니다.

"삼촌 저것 봐요, 저것" 하고 옥미가 삼촌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에 퉤 더러워, 저것이 이를 잡아 먹어요."

"아니란다. 누구나 다 원숭이가 남의 이를 잡아 먹는 줄로 알지만, 원숭이가 얼마나 깨끗한 짐승이기에 그러니? 그것은 이를 잡아 먹는 것이 아니라 원숭이 피부 땀구멍으로 가끔 발출한 소금 덩이 같은 것이 돋는데, 그것을 뜯어 먹느라고 그런단다."

"책에서 보니까 원숭이 중에도 요런 조그만 것들 외에 사람의 범 큰 것도 있대요."

하고 장호가 학교에서 배운 자랑을 하였습니다.

"그렇고 말고. 사람보다 더 큰 것도 있지. 요런 것들은 다 하급이고, 상등 원숭이로는 "침팬지"라는 것과 "오랑우탄"이란 것이 있다. "침팬지"란 원숭이는 얼굴이 생기기도 사람 늙은 영감처럼 생기고, 사람처럼 걷기도 쉽게 늘고, 어떻게도 영리한지 젓가락질도 배우고, 컵으로 물도 마실 줄 알고, 이부자리를 개어 치울 줄도 안다. 어떤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 한 마리는, 구경꾼이 지푸라기를 던져 주고, '네 개 다고' 하면 네 개를 세어 내 주고, '열 개 다고' 하면 열 개를 세어 내 주더란다. 한 번은 네 개를 달랬더니 세 개를 내 줌으로 사람이 잘못 했냐고, 그랬는데 원숭이는 어떻게 했을까?"

"한 개 더 집어 주었겠지요." 하고 장호가 대답하니 삼촌 말씀이,

"그거야 무어 장하니. 그렇게 하지를 않고, 한 오라기를 도로 빼어 가지고, 절반 씩 꺾어서 두 오라기를

만들어, 네 오라기라고 식혀 수더란다."

"아이, 참 영리도 하지."

원숭이 중에 제일 큰 종류를 "고리라"라고 하는데, 사람보다 더 큰 것이 있고 제일 악한 종류이다. 이 다음 어른이 되어서 중학교에 가게 되면 '[illegible]의' 지은 '고리라 사냥군들'이란 책을 읽으면 이 원숭이에 대한 참으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알 수가 있다."

★위생 지식★

응급 치료

병이 났을 때, 의사를 부르러 간 새의 응급 치료의 한 방도는, 그 병을 고치는데 큰 관계가 있습니다.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응급 치료 법을 말해 드리면, ①중독(中毒)되었을 때에는 곧 물, 우유, 계란 흰자위 같은 것을 많이 먹어서, 음식물을 토하게 할 것. ②산성 독물(酸性毒物)을 먹었을 때에는 소다수같은 알칼리성(性)의 물을 먹이고, ③알칼리성 독물에는 초같은 산성을 먹일 것. ④뱀에 물리거나 벌 같은 독 있는 짐승들게 쐈을 때에는 암모니아수를 바르고, 물린 데에서 조금 위를 끈으로 묶을 것. ⑤미친 개에게 물렸을 때에는 곧 예방 주사를 맞을 것. ⑥뇌빈혈을 일으켰을 때에는 반드시 누이고 발을 높이 할 것. ⑦뇌일혈을 일으켰을 때에는 잘 누이고 머리를 차게 시킬 것. ⑧뜨거운 물에 데었을 때에는 빨리 옷을 벗기고 약을 바를 것입니다.

그림 속담

풍년 거지 더 섧다

풍년이면 다같이 기뻐하고 다같이 먹어야 하며, 해방이 됐으면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할 터인데, 몇몇 사람들은 잘 살게 되었을지 몰라도, 백성은 오히려 더 살기가 어렵게 되었으니 생각하면 기가막힌 노릇이다.

급하면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까?

아무리 급해도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 즉 조선이 독립을 하려고, "임시 정부"를 세워 가지고, 차차 힘을 길러야지, 지금 3천만이 "독립 만세"만 부른다고, 독립이 하늘에서 떨어져 주지는 않는다.

수염이 석자라도 먹어야 샌님

겉은 버젓하게 차려 입었어도, 뱃속에서 "꼬르르" 소리가 나서야 할수 없다는 말. 나라도 백성이 배 곯지 않고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지, 이름만 버젓한 "독립국"이 된대도, 백성들이 못살게 돼서는 소용 없을 것이다.

이불 속에서 활개친다

밖에 나가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친구가, 집 안에서는 혼자 큰 소리만 하는, 그런 못난 사람을 가리켜 말함. 훌륭한 사람이란 언제나 겸손하면서도, 할 일은 당당히 한다.

(그림·김 의환)

동 화

나는 개구리에요

유 석 빈

나는 개구리에요. 나는 개굴개굴하고 잘 우니까 개구리지요. 그러나 올 봄에 처음으로 나와서는 땅은 풀렸었지만 어쩐지 우는지 못 울었에요. 겨우내 살던 집이 그리울만큼 추웠거던요. 집이래야 양지쪽 논두렁 아래에 있는 작은 굴 속이지만요.

겨우내 캄캄한 굴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그런지 처음엔 눈이 부시기도 하고, 또 정신을 차린 뒤에는 논두렁 밑, 양지쪽, 풀 센 데다가 알을 까 놓느라고 어찌나 바빴었는지, 우는 것조차 잊었었에요. 나 말고라도, 어떤 개구리한테든지 물어 보세요. "개구리야,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사니."하면, 그 뚱보 두꺼비 말고는 저 청개구리까지라도, "우리는 우는 맛에 산다."라고 서슴지 않고 대답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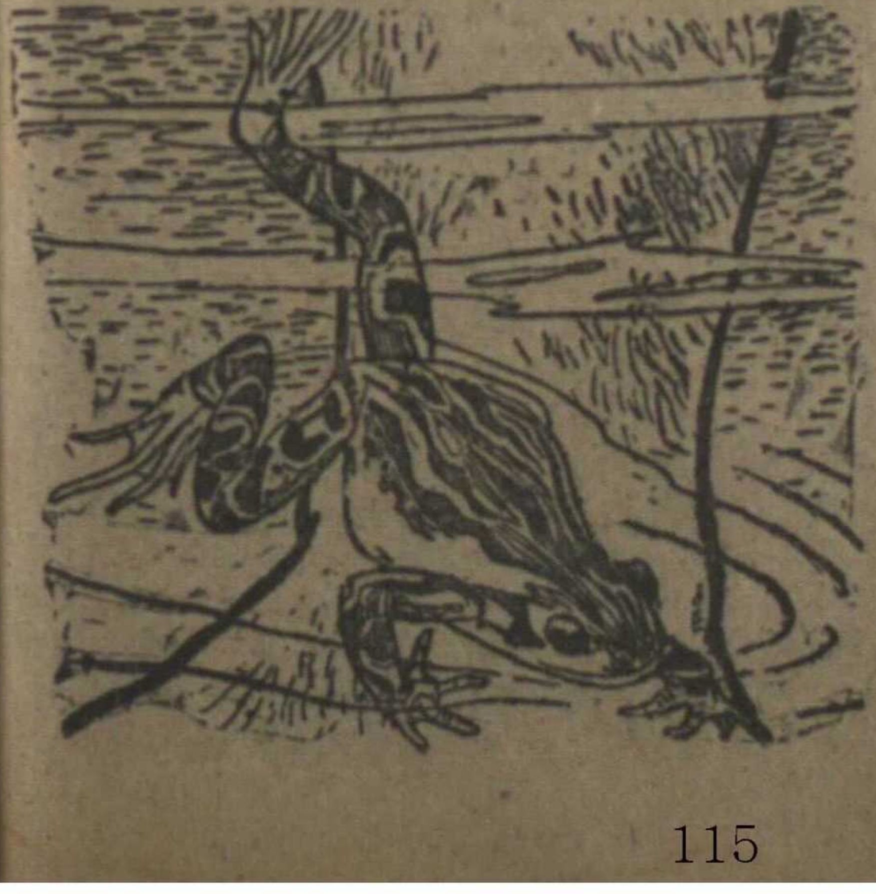
바깥 경치도 눈에 익고, 알도 까 놓고 하니, 어쩐지 무얼 잊어 버린 것처럼 서운해요. 무엇 때문일까? 뒷짐을 지고, 멀뚱만 남은 벼포기 사이로 왔다 갔다하며 생각하더니까, 오늘지 그 때까지 바빠서 우는 것을 잊어 버렸었단 말이에요. 원 그래서야 개구리란 이름을 떼어 버리든지 해야지, 어디 쓰겠어요. "꾸루룩 꾸루룩" 어쩐지 서툴러요. 한참 악보를 보며 연습을 하였더니 얼마 후에 "개굴개굴 개굴개굴"하고 얼마든지 울겠거던요. "어쩔말이냐, 그래 뭐도 개구리인데. 개굴개굴 개굴개굴"하고 막 울어댔지요. 그 날 낮에 나는 신이 나서 실컷 울었는데, 저녁때가 되더니, 바람이 쌩쌩 불고 진눈깨비 진짓 줄까지 싸이렌처럼 울어대겠지요. "에그머니나, 이게 웬일일까? 날이 다시 겨울로 뒷걸음질을 한단 말인가? 이거 괜히 나왔군."하고 후회했지만 쓸데 있에요? 나는 그 날 밤에 꽤 얼어 죽을 뻔했답니다. 그 무서운 밤이 지나고 그 이튿날 아침 햇살에 간신히 살아나기는 했지만, 알을 까 놓은 곳이 걱정이 되어서, 가까스로 눈을 떼서 보니, 엷게 얼은 논의 물이 어렴풋이 보이겠지요. 알이 얼어 터지거나 않았나 하고 가서 보며 해도 사지가 얼었다 녹으니 기운이 있어야지요. 그 날은 하루 종일 양지쪽에 죽 늘어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그만 때가 서글펐에요. 저녁 햇볕은 좀시도 따뜻했지만, 개굴개굴하고 울만한 힘은커녕, 그런 엄두도 못 냈었는데, 논두렁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것 봐, 경칩 전에 그렇게 따뜻하더니 그럴 줄 알았지. 어젯밤 추위로 개구리 입을 봉하고 말았거던." "그래, 개구리 입이 다시 열려야 정말 봄이지. 올해는 꽃자리를 어디다 할까?" 두런두런 얘기하고 지나 가는 말이 꽉 잡고데처럼 어렴풋이 들렸습니다.

비가 몇 번인가 오고나더니 날은 훨씬 풀리고, 아무리 게으름뱅이 개구리일지라도 모두들 기어 나왔을만한 때에요. 우리는 물이 괴어 있는 꽃자리 논에 모여서, 낮에 뜨뜻해졌던 논 물이 식어서 써늘해질 때까지, 고요한 밤중을 우리 세상이라고 울어댑니다. 올 봄에 개나리가 노랗고, 앞 산에 진달래가 붉으면, 기나 긴 봄날이 어쩌면 그렇게 하잘것없이 쉬 지나 가는지 몰라요. 버들잎이 눈처럼 날고, 아까시아 꽃이 향기를 뿜기 시작하며,

조그만 올챙이들이 물 속에서 헤엄칠 무렵에는, 우리들의 울음소리도 한결 더 경장하여집니다. 우리들 개구리들의 몸집이 커졌으니까 울음소리까지 커진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우리 새끼들은 어디 갔나 개골, 이상하다 개골."

이렇게들 울어대니 사람들은 좀 시끄럽다고 할거예요. 왜, 올챙이가 개구리 새끼지 뭐냐고요? 글쎄 그렇다 해서, 그래서 보니까 그런지 어쩐지 비슷한 데도 있기는 있지만, 우리는 꼬리가 없는데 올챙이는 꼬리가 있지요. 우리는 다리가 앞 뒤에 달렸지만 고놈들은 다리가 없이 밋밋한 모양이 허술하고 잘거던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가끔 물 속에서 놀 때도 있지만 물 밖에서 살고 있는데, 올챙이는 한 번도 엄마 아빠를 따라서 물 밖에 나온 것을 도무지 본 적이 없대요. 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고 하시니, 그게 무슨 말씀이예요? 이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암만 해도 곧이 들지를 않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밭에는 밀보리가 모두 패어서 누릇누릇해지고, 못자리에는 모가 한 뼘이나 자라면, 모 내기 전에 못자리 임자는 매일 논에 찾아 오지요. 논두렁에다 겉신을 간드런히 벗어 놓고는 곰방대를 꺼내어 담배를 담아 물고 두서발지에서, 수리치와 사물을 때 쉬고 익숙한 솜씨로 턱하고 쇠를 거매는데, 단번에 번쩍하기가 무섭게 수리치가 하기를 시작하면, 담배 위에 수리치를 썩 올려 놓고 쌔쌔 빨어 입부명하고 물 속에 다리를 들어 놓읍니다. 매일 보는 것이지만 하도 그 모양이 멋지고 먼음지해서, 나도 덤벙 논에 쫓아 들어 가서, 털이 덥석덥석하게 난 굵은 다리 가장자리를 헤엄쳐서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 나오지요.



날씨가 훈훈하여지고, 지내대 하루살이가 떼지어 날면, 몸이 근질근질하여지고 기분이 답답하여져서, 그런 날 밤에는 부덮고 명쾌고 싶은, 가랍스러운 마음을 풀기 위하여 힘껏 울어요. 그리고 난 다음 날에는 영낙없이 비가 오거던요. 시원한 비를 맞고 있을 적의 상쾌한 기분이란, 개구리가 아니고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비가 오면 아주 물마 풀만큼 나무 잎이나 풀이나 주성귀나 모가 무럭무럭 자라지요.

날이 차차 더워질수록 우리의 먹을 것도 많아지니까, 우리들도 무럭무럭 자라지요. 쟁기로 갈아 놓은 논에 물을 담뿍 담아 놓고 쓰레질을 하고 나면, 여자 남자 할 것 없이, 조옥 늘어 앉드러어 모를 냅니다. "에헤야 좋다두,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에헤야 좋다두"모내기 노래를 구성지게 하며 모를 내면, 담박 몇 마지기씩 세퍼제퍼 모가 나가지요. "아이 따가와, 따가와, 요놈의 거머리"하고 제 정갱이를 탁 쳐서, 거머리를 떼어 언덕으로 던진 아주먼네, 다리에서는 피가 철철 흐릅니다. 우리 개구리들은 모를 내기가

무섭게 다 낸 논으로 가서, "애헴, 모를 잘들 냈나?"하고 모포기 사이로 돌아 다녀 본다냐요. 그러나 하루 종일 엎드려 며칠씩 모를 내는 저 농군들은 얼마나 허리가 아프고 힘이 들까요?

멍에를 벗은 소는, 한참 힘이 들고 숨이 가빠서 오래 동안 씨근씨근하더니, 쉴 사이도 없이 논둑에 난 풀을 써걱써걱하고 먹어 들이는데, 아유! 그 풀에서 나는 달콤하고도 향기로운 풀 냄새야. 소는 고개를 끄떡끄떡하며 풀을 뜯지요. 소의 몸에는 아까 쓰레질할 제 텀벙텀벙하고 물이 가득한 논을 돌아 다녀서, 흙투성이에요. 그 육착한 몸뚱이가 "이러 이러, 어디여, 쩟, 쩟, 쩟, 쩟." 하고 몰기만 하면, 아뭇소리도 못하고 그저 끌려 다니는 꼴이란 여간 익살이 아네요.

소가 가는 곳마다 파리가 쫓아 다니고, 파리가 있는 곳에 또 내가 없을 수 없지요. 나는 시치미를 떼고 소가 풀 뜯는 옆에, 마치 돌멩이처럼 꼼짝 않고 쭈크리고 앉아 있다가, 파리가 안심하고 근처에 날아 오기만 하면, 혓바닥으로 홀떡 말아 들이고, 홀떡 말아 들이고 하지요. "두꺼비 파리 잡아 먹듯 한다"는 말이 있지 않아요? 우리 일가인 두꺼비는 천연 생김생김이 돌멩이처럼 생겼고 빛도 그래서, 파리가 꽉 속나봐요. 욕심장이 개구리가 소 옆에 앉았다가, 지도 소 메때기처럼 배가 불러 보겠다고, 자꾸 숨을 들이켰다가 고만 "뻥" 하고 터졌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런 엉터리 없는 말이 어디 있에요. 우리 개구리 중에는 그런 못난 허영심을 가진 욕심장이 개구리는 없을거에요.

소 다리나 사람 다리는 모두 우리 개구리들의 눈에 익은 다리지요. 사람이나 소는 어마어마해서 잘 치어다 보지도 않지만, 우리는 다리만 보면, 송아지 다리는 사람 다리, 저건 쇠다리, 말다리 모두 알지요. 지까다비를 신은 다리도 가끔 와서 과히 서투르지는 않지만, 사람 다리 중에도 우리가 제일 친한 것은, 짚신을 신은 농군의 다리에요. 그런데 접때는 낯설은 다리들이 걸어 오기에 가만히 보니까, 새까만 게 반짝반짝 닦은 가죽 신발들인데, 우리 동무들은 살무사나 능구렝이를 본 것처럼 기급을 해서 논으로 텀벙텀벙 뛰어 들어 가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중얼대기를 "저어기 저, 사람들이 일하는 논에서, 저 쪽 개울가 보 안까지가 우리 논이지요. 흉년, 풍년을 모르는 참 훌륭한 논들이지요" 물 속에서 헤엄쳐 가며 잘못 들었는지도 모르지만, 우리들이 생각하기는, 매일 매일 논에서 일하는 우리가 친한 저 짚신 신은 분들이 논의 임자인 줄만 알았더니, 이 번짝번짝하는 가죽 구두 신은 분이 임자라고 하는 말이,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곧이 들리지 않아요.

건너 마을 밤나무 꽃이 피기 전에 모내기는 끝나고, 눈 앞에 뵈는 논이란 논은 푸른빛으로 덮이고, 모내기 전후에는 올챙이들도 숙성한 놈들은 다리 나고 꼬리 떼고 땅 위로 올라 오니, 밤마다 좋아서 "기뻐해라, 개굴개굴 허안해라, 개굴개굴."하고 울지요. 자아 들어 보세요. 개구리 음악대를 "뽕까뽕까 개굴개굴, 뽕까뽕까, 개굴개굴." 어떻습니까? 그 중의 간간이 "뺑꽁뺑꽁"하는 것은 물론 맹꽁인데, 고따서너는 지따롭지 못하게 생겨서, 오속에서 맹꽁이라 하지만, 뽕까뽕까 개굴개굴 소리 가운데에, 가끔 섞여서 뺑꽁뺑꽁하는 울음소리가 어때요. 재미있지 않아요?" (끝)

열리지 않는 뚜껑은 이렇게

약병 마개나 만년필 뚜껑이 잘 열리지 않을 때에는 화로불에 따뜻하게 쪼이거나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열면 쉽게 열립니다. 만일 너무 뜨거워서 손을 대지 못할 때에는 수건이나 헝겊으로 싸가지고 여십시오.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가소린 같은 기름에 불이 붙었을 때 절대로 물을 끼얹으면 안됩니다. 기름은 물보다 가벼워서 물을 끼얹으면 불이 물 위에 떠올라서 사방으로 퍼지게 되고, 또 물방울과 함께 불이 먼 곳으로 튀어 가게 되니 퍽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는 소화기(消火器)를 던지면 제일 좋지만 소화기가 없을 적에는 모래나 재를 뿌리든지 가마니 같은 것으로 덮은 다음 물을 끼얹으면 꺼집니다.

유리에 종이를 붙이려면

유리에 종이를 붙일 때에

보통 풀을 쓰고 있는데, 풀로 붙이면 나중에 떼는데도 힘이 들 뿐 아니라 뗀 뒤가 퍽 더러워집니다. 이것을 손쉽고 깨끗하게 붙이려면 먼저 붙일 종이에 빨래비누를 문지르고 축축하게 물을 칠한 다음 유리에 붙이면 이상하게도 잘 붙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깨어진 양철 그릇 때우는 법

대야 같은 양철 그릇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샐 때에는 납종이로 꽉 오려막고 인두로 꽉꽉 누르면 감쪽같이 때워집니다. 또 양초를

녹여 붙이거나 반창고를 붙이면 임시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불에 올려 놓지는 못하나 임시 곤란은 면할 수 있습니다.

주둥이가 작은 병에 물을 담을 때

주둥이가 작은 병에 물이나 기름을 담을 때에는 좀 두꺼운 종이로 그림과 같이 만들어서 밑에 조그만 구멍을 내어 가지고 옮겨 담으면 아무리 주둥이가 작은 병이라도 흘리지 않고 손쉽게 담을 수가 있습니다.

좀 안 먹게 하는 방법

우리가 여름에 애써 곤충(昆蟲)을 모아서 표본(標本)을 만들어 놓고 해도, 보관하는 방법을 몰라서 좀이 먹거나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것을 잘 보관하려면 뚜껑 있는 나무 상자 같은 그릇에, 삼끈에 나후다린을 단 것을 안에다 못으로 박은 후 넣어 두면 절대로 벌레도 먹지 않고 썩지도 않습니다. 이 방법은 곤충 표본을 보관하는데 뿐만 아니라 털옷이나 책 같은 것을 보관하는데도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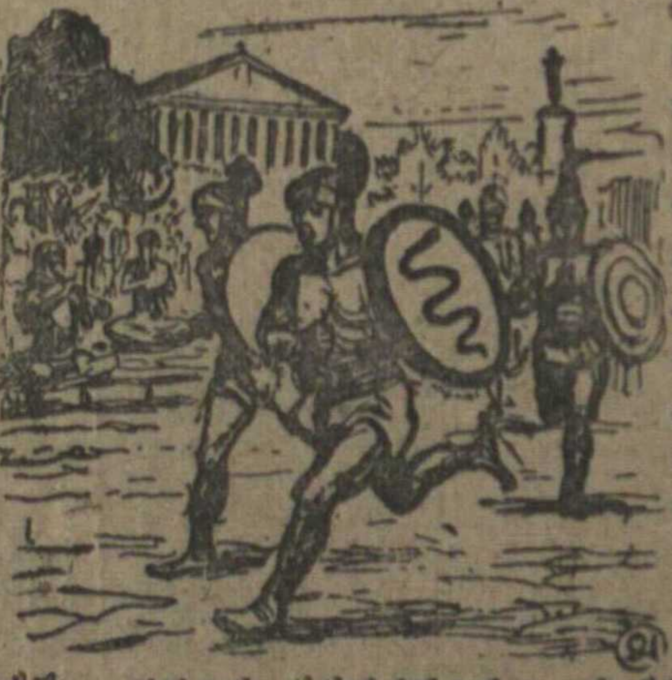
"마라손"의 내력과 조선의 "마라손"

유 해 봉

어린이 여러 분! 지난 4월 19일 미국 뽀스톤시에서 열린, 국제적 마라손 대회에 출장한 우리 나라의 서 윤복(徐潤福) 선수는, 2 시간 25 분 39 초라는 좋은 기록(신기록)으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선수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우승하여 전 세계에 그 힘을 뽐냈습니다. 우리 조선 선수는 두 번째 전 세계 마라손 선수들과 경주하여 이겼으니, 마라손에는 세계 제일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조선을 "마라손 왕국"이라는 별명까지 붙이어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나라는 이것으로만 보아도 다른 나라보다 뛰어난 재주를 가진 것이 분명하니, 여러 분은 앞으로 더욱 공부하시어 전 세계를 놀래게 할 발명도 하시고, 글도 쓰시고 해서 우리 나라를 길이 보존할 방패가 됩시다.

마라손 경주는 지금부터 2436 년 전 옛날 파사(波斯) 나라 10 만 대군이 배를 타고, 기리샤(希臘)의 서울 아데네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마라손이라는 바닷 가의 작은 동네까지 쳐 들어 왔었습니다. 기리샤 나라 사람들은, 대단히 놀라서 그 때 용감스럽게 알려진 스팔타에 사신(使臣)을 보내어, 구원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스팔타 병정이 오기 전에 아데네로부터 1만 1천의 세찬 병정과 복부 기리샤 사람 천 명이 굳게 뭉치어 와, 파사(波斯) 십만 대군과 일치 단결하여 싸운 결과, 적군을 보기 좋게 물리쳤습니다. 이 때 불안에 싸여 있는 서울 아데네까지 이 승리를



알리고자 아이데피데스라는 청년 용사는 현장으로부터 아데네까지 26 마일 ¼을 단숨에 달려 "우리 나라가 이겼다"는 말을 한 후 죽고 말았습니다. 그 때부터 이 용사의 조국에의 끓는 명예를 영원히 보장하기 위하여, 26 마일 ¼의 장거리 경주를 경기 종목에 넣어 "마라손"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마라손 경주는 2400 여 년 전 그 옛날부터 행하여 오던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경기 종목에 넣었다고 말하였는데, 당시 기리샤 나라에서는 그러면 어때한 것을 하였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리샤 나라 사대(四大) 제사(祭事) 중 올림피 대제(大祭)라는 제사가 있었는데 4 년만에 한 번씩 개최되었습니다. 그 시기는 하지(夏至)로부터 둘째 번이나 세 번 만월(滿月)이 될 때로서 그 제사 목적은 물론 쥬우스의 신(神)을 위로하는 것이지만, 한편 기리샤 나라 민족의 세력 통일을 위한 민족 정신을 북돋우는 지금의 스포쓰 경기 회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제사가 개최되는 한 달 동안은 거룩한 때라 하여, 각국에 평화가 선언되고, 만일 전쟁을 하는 곳이 있다면 당장 중지 명령을 하는 등, 평화의 빛으로 덮이어 이에 참례하는 사람들은 안심하고 자기들의 힘을 마음 놓고 뽐냈던 것입니다. 제사는 한 달

이나 지내지만, 경기는 전후 닷새 동안 거행되는데, 그 종목은 경주, 오종경기(五種競技=走廣跳, 競走, 投圓盤, 投槍, 씨름) 권투, 수영 같은 것이었었는데,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 때 마침 파사 군이 쳐 들어 온 것을 물리치고 대승하여, 이 종목 중에 마라손을 넣어 4 년만에 한 번씩 거행하여, 이 제전(祭典)은 천 년이나 계속되었는데, 기리샤가 로오마의 지배를 받게 되어, 기독교가 로오마 제국의 국교(國敎)가 되는 동시에, 모든 다른 신(神)에 관한 제사가 폐지되어, 역사 깊은 이 올림픽 제전도 자연 중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운명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서력 394 년입니다. 그래도 1502 년을 보내고, 불란서 사람 피엘·구우벨탄 남작의 열렬한 부르짖음으로, 근대 올림픽 대회 제 1 회가 1896 년 4 월 25 일, 고대(古代) 기리샤의 유명한 고적 아텐스에서 개최되었는데, 제 1 회서부터 제 11 회 벨르린 올림픽 대회까지의 대회가 열린 나라와 마라손 우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 (1896 년) 기리샤에서 루이스 (기리샤 선수) 2 시간 55 분 20 초.

2 회 (1900 년) 불란서에서 떼떼로 (불란서 선수) 2 시간 59 분.

3 회 (1904 년) 미국에서 힉스 (미국 선수) 3 시간 28 분 53 초.

4 회 (1908 년) 영국에서 마라손은 중지.

5 회 (1912 년) 서전에서 맥아더 (남 아메리카 선수) 2 시간 36 분 4 초 8.

6 회 (1916 년) 독일에서 제 1 차 세계 대전으로 중지.

7 회 (1920 년) 백이의에서 코오레마이넨 (분란(芬蘭) 선수) 2 시간 32 분 35 초 8.

8 회 (1924 년) 불란서에서 스텐로오스 (분란 선수) 2 시간 41 분 22 초 6.

9 회 (1928 년) 화란에서 와피 (불란서 선수) 2 시간 32 분 57 초.

10 회 (1932 년) 미국에서 자바라 (알젠친 선수) 2 시간 31 분 36 초.

11 회 (1936 년) 독일에서 손 기정 (조선 선수) 2 시간 29 분 19 초 2.

우리 나라가 "마라손 왕국"이라는 칭호를 듣게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 양정(養正) 중학교의 공로를 들고 싶습니다. 양정 학교는 운동장이 좁으니까, 체조 시간만 되면 학생들을 전로 내보내어, 매일 뛰게한 결과, 장거리 경주에는 으레히 첫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전 경주(驛傳 競走)에 네 번이나 참가하여, 모조리 전 일본 학교를 물리치고 우승하여, 마라손 조선의 싹이 트기 시작하였습니다. 거기서 1931 년에는 4 학년생 김은배(金恩培) 선수가, 마라손에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여 우리들을 놀라게 하였습

하늘에 빙빙 땅에 빙빙　　여 수 영

하늘에 빙빙 솔개 돈다.
땅에 빙빙 그림자 돈다.

솔개 돌아 그림자 도나.
그림자 돌아 솔개 도나.

하늘에 빙빙 땅에 빙빙.
솔개와 그림자 함께 돌지.

(그림·김 의환)

니다. 그 다음 해는 바로 미국 로스안젤스에서, 제 10 회 세계 올림픽 대회가 열리게 되어 권 태하(權泰夏), 김 은배(金恩培) 두 선수는 손을 맞잡고, 우리로서는 처음으로 올림픽 마라손 경주에 참가하여 김 은배 선수는 여섯째, 권 선수는 아홉째를 하여, 마라손에 세계적 진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자극되어, 마라손을 연습하는 선수는 날로 늘어 갔습니다. 마라손 열은 조선 방방곡곡에 전파하여, 압록강 연 신의주(新義州)에 사는 손 기정 소년은, 강 건너 안동현에 있는 은(銀)방에 급사로 있으면서, 매일 같이 압록강 철교를 뛰어 왕복하여, 그 발은 쇠 같이 되어, 마라손 왕은 자라났습니다.

양정 중학 5 학년생인 손 기정 선수는 1936 년, 독일 베르린 올림픽 대회에, 남 승룡 선수와 같이 그 지긋지긋한 왜놈의 일장 마아크를 달고 출장하여, 전 세계의 마라손 선수를 제치고, 우승을 하고, 남 선수는 3 등을 하여, 우리의 실력을 여지없이 발휘하였으니 장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만, 왜놈의 독사 같은 눈을 피해 가며, 우리 한글로 손 선수는 "사인"을 하며, 나는 조선 사람이란 것을 말하고, 부순 쇠나 친 것처럼 한 구석에 풀 없이 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 생각해 보아도 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뿐입니까? 우승한 사진을 신문에 올리려 해도, 그 놈의 일장 마아크가 보기 싫어 일장 마아크를 지웠더니, 당시 우리의 신문, 조선, 중앙, 동아 일보의 세 신문을 정간을 시키고, 기자를 가두는 등, 갖

은 욕심스러운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독립하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꼴을 보지 않습니다. 뛰기만 하여도 아니됩니다. 뛰어 잘 잘는 몸을 만드는 동시에, 적보다 더 강한 마음을 양성하고 재주를 배워, 원수 격멸하는데 힘쓰며 씩씩한 일군이 됩시다.

소학생 여러 분! 마라손 선수가 되겠다고, 26 마일을 뛰어서는 아니됩니다. 작은 차(車)에다 무거운 짐을 실으면, 차는 오히려 부서지고 맙니다. 여러 분은 이를 명심하여, 오히려 건강에 힘쓰며 키가 자라고 근육이 충분해지도록 적당히 뛰어(최고 3 마일=1 마일은 약 1600 m), 힘을 길러 주십시오. 중학교 3 학년이 되거든, 단거리로 중, 장 거리를 뛰는 것이 오히려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라손 선수는 거의 다 가세가 가난한 것은 주목할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라손은 폐로, 심장도, 다 튼튼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정신력이 강해야합니다. 보통 사람은 마라손을 뛰는 도중에 적어도 열 번은 그만 두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이따금 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라손을 능히 다 뛸 수 있는 사람은, 이러한 고난한 일이라도 참아 나가고 [illegible], 투지도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 두 마리의 개구리 청 라

두 마리의 개구리가 어느 연못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몹시 가물어서 물이 말라 버렸으므로, 다른 곳으로 옮겨 가기로 하고 길이 나섰습니다. 얼마쯤 가다니까 우물이 하나 있는데, 물이 찰랑찰랑 괴어 있었습니다. 앞서 가던 개구리가, 그것을 보고, 펄떡 펄떡 하면서 말했습니다. "됐다, 됐어! 이 만하면 좋지. 퍽 깊고, 물도 시원할거야. 우리 뛰어 들어 가세." 다른 개구리가 그것을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만 있게. 여기도 그리 안심할 수는 없어. 만일 이 샘물이 말라 버린다면, 그거야말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게 될 테니까."

이 전에 미국 보스톤, 마라손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서 윤복 선수도, 그의 형님은 구두마를 팔아 생활을 하는 처지로, 서 선수의 동무들이 점심도 못 먹고 연습하는 서 선수에게 자기 점심을 주는 등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각 대학에서는 서 윤복 선수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청하여 왔으나, 그 중에서 서 선수는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체육을 연구하는 대학의 장학금을 받겠다고 한 것이며, 서 선수는 그 곳에서 공부한 후 조선에 돌아 와 체육 지도자가 되겠다고, 미국 신문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러 분도 서 선수처럼 훌륭히 되고 싶지요?

내년 영국에서 열릴 세계 올림픽 대회에 조선도 참가하려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회에도 마라손에 우승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만, 또 어떤 나라에서 우승을 노리고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마음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적(強敵)은 장거리로 유명한 분란 나라입니다. 보스톤 마라손 대회에서도 분란 선수가 둘째를 했습니다.

여러 분 중에서도 마라손을 좋아하시는 분은 잘 훈련하여, 다음 다음 세계 올림픽에는 꼭 출장하여 마라손 조선의 명예를 위하여 분투하십시다.

未(염소)　　申(원숭이)　　酉(닭)

새로 발굴된

고려 벽화 이야기

황 수 영

우리 나라의 옛 문화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욱 심한 파괴를 당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이 퍽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는 자연 작용(自然 作用)에 의하여 손상도 되었지만, 전쟁이나 불 같은 것으로 인하여 부서지고 또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만 땅 속에 깊이 있는 것은 자연의 힘과 사람의 손이 잘 미치지 못하는 까닭에 오랜 세월이 지나도 남아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날 발굴되어 옛날을 연구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금까지 고분(古墳)에서 발굴된 유명한 것은 고구려의 벽화(壁畵), 신라의 왕관(王冠), 고려의 청자(靑磁) 등이 있으며, 다음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난 5월에 개성(開城) 근방에서 새로 발굴된 고려 고분이야기입니다.

작년 5월에 신라의 옛 서울 경주(慶州)에서 발굴된 고분의 이야기를 읽으셨습니까? (수산 소학생 18 호) 이번에는 지난 5월 3일부터 약 1 주일 동안 국립 박물관(國立 博物館)에 계신 이 홍직 선생 이하 여러 분의 손으로 발굴된 고려 고분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곳은 고려의 옛 서울 개성에서 동쪽으로 약 10 리쯤 되는 장단 군 진서 면 법당 방(長端 郡 津西 面 法堂 坊)이라는 곳입니다. 그 곳에는 고려 시대의 고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교적 큰 것이 세 개, 길 옆 산비탈에 남북으로 나란히 있습니다. 이 중에서 벽화가(그림 제 1) 있는 가운데 고분의 겉모양은 흙을 둥글게 쌓아 놓았던 자취가 겨우 남아 있을 뿐이고, 비(碑)나 돌로 만든 사람이나 동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때의 누구의 것인지는 알 수 없고 다만 그 규모(規模)로 보아 고려 시대의 귀족 계급(貴族階級)에 속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추측될 뿐입니다. 이 봉분(封墳) 밑에는 남쪽으로 향한 구형(矩形)의 석실(石室)을 만들었는데, (그림 제 2) 그 길이는 2.70m 넓이는 1.55m 높이는 1.20m이며, 그 밑바닥 중앙에는 목관(木棺)을 놓았던 줄이 있고, 위에는 큰 쪽돌을 얹으므로서 이 석실을 덮고 있습니다. 이 석실 주위의 벽에는 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 정복(正服)하고 서 있는 인물의 모양을 그렸습니다. 원래는 동서에 각 4 위(位)씩 남북에 각 2 위(位)씩 모두 12 위(位)의 신상(神像)이 있었던 것인데, 벽이 떨어지고 또는 물에 와 때지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남아 있는 것은 몇과 몇 밖에 안됩니다. 이 신상들은 모두 머리에 관(冠)을 쓰고, 그 관의 중앙에는 용 닭 같은 동물의 머리를 그렸는데, 그것은 "12지(支) 신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2지라 함은 아주 오랜 옛날 중국에서 들어와 우리 나라에 널리 퍼져 내려오던 사상(思想)으로, 일상 생활에까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 분도 잘

우리 자랑

동양에서 처음 쓴

개 성 부 기

임 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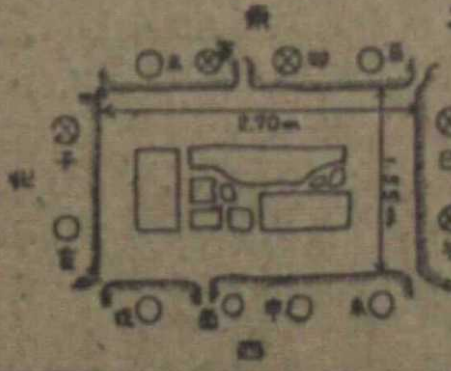
여러 분은 은행이나 회사나 상점에서 쓰고 있는 장부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장부의 기입법이 모두 복식으로 되어 있어, 모든 금전적 가치의 증감(增減)을 계산과 자본의 두 방면으로 관찰하여, 모든 거래가 꼭 대차(貸借) 두 요소로 나뉘어 져서 기록 계산하고 있습니다. 복식 부기는 13 세기에 이태리의 후로렌쓰라는 도시에서 시작한 것을 시초로 삼으나, 오늘의 개성 부기가 복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곧 개성 부기는 일명 송도사개치부(松都四介治簿)라고도 하여, 외상장책(外上長冊) 타급장책

(捧給長冊) 초일기(草日記) 명심록(銘心錄)으로 나뉘어 있어, 현 복식 부기의 차변원장(借邊元帳) 대변원장(貸邊元帳) 분개장(分介帳) 보조부(補助簿)에 각각 해당되어, 출금거래(出金去來)의 기장은 외상장책에, 입금거래(入金去來)의 기장은 타급장책에 기장하는 복식 부기입니다. 개성 부기에 관한 문헌이 남지 않아 누구의 지음이며 언제부터 써 내려 오는 것인지는 모르나, 개성 상인의 말에 의하면 고려가 이씨 조선으로 바뀌인 후, 개성 사람들은 상업으로만 세계를 대하던 이후에, 고안 사용되어 온 것이라 함을 보아, 지금부터 약 500 년 전인 것은 짐작할 수 있으며, 동양서는 시초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 시인 괴테는 인류의 창조한 삼대 발명을 인쇄, 화약, 및 복식 부기라 하였는데, 이 하나의 문화재(文化財)를 우리 나라에서 창작한 것은 고려 자기, 고려 인삼과 함께 세계적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머님께서 "오늘은 쥐날이냐, 소날이냐?" 하시며 날을 보시는 것을 들으셨겠지요. 또 올해는 돼지띠니 범띠니 하는 말도 들으셨겠지요. 이것은 열 두 가지의 동물을 가지고 동, 서, 남, 북의 방향도 표시하고, 또 시간도 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 두 가지의 동물은 쥐(子—자)' 소(丑—축) 범(寅—인) 토끼(卯—묘) 용(辰—진) 뱀(巳—사) 말(午—오) 염소(未—미) 원숭이(申—신) 닭(酉—유) 개(戌—술) 돼지(亥—해)입니다.

그런데 이 고분에서는 제 2 도와 같이 12지가 배치되어 각 방향에 그에 맞는 동물을 머리 위에 가진 신상이 서 있습니다. 이 그림은 모두 색칠까지 하였는데, 그 얼굴이 온화하고 그 옷이 단정하여 그 당시의 사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외에 천정(天井)이 되는 두껑돌의 하나에는 간단한 천체도(天體圖)가 있는데, 이것은 밤에 별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석실은 하늘과 땅이 모두 갖추어 있는 작은 우주(小宇宙)라고도 하겠습니다. 이 벽화는 1916 년 개성 남쪽 수락암동(水落岩洞)에서 처음으로 고려 벽화가 발견된 이후 두 번째가 되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 하겠는데, 고려 시대의 그림으로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이 퍽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 벽화는 임 천 선생이 모사(模寫)하였는데, 지금 국립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으므로 우리의 옛 문화 연구에 중요한 재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림 제 2



고려 고분의 제면도와 12지 배치.(× 표는 안 보이는 그림.

역사 소설

이 순신 장군

박 태원 지음 ★ 김 기창 그림

6 월 치까지의 대강 이야기

난리다, 난리다!

2백 년 동안, 태평을 꿈꾸며 일 없이 지내 오던 이 땅에, 저 깜찍한 왜놈들이 쳐 들어 오기 시작하였다. 즉 풍신 수길(豊臣秀吉)의 명(命)을 받은, 가등 청정(加藤 淸正)이와 소서 행장(小西 行長)이가, 20만의 대군을 거느리고, 임진년——지금으로부터 365 년 전 4 월 13일에 부산에 상륙한 것이다. 뜻하지 않은 난리를 만나게 되자,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나, 온 백성들은 그만 혼비 백산하여, 왜적을 막아 낼 도리는 생각지 않고, 제 목숨들만 살겠다고 도망하기에 바빴다. 부산은 왜적이 상륙하던 그 날로 함몰하고, 그 이름났던 동래가 둘러빠지고 말았다. 왜적은 기세를 올려, 세 길로 나뉘 경주, 상주, 대구, 충주, 등을 모조리 친 다음, 4 월 그믐에는 서울도 왜적의 말굽에 짓밟히게 되고 말았다.

한편 바다에서는, 선조(宣祖) 24 년 임진 왜난이 일어나던 전해 5 월에, 전라 좌수사가 되어 여수(麗水)로 내려 온 이 순신 장군은, 조정의 대관들이 당파 싸움과 사욕에 골몰할 제, 미리부터 멀지 않아 왜적이 쳐 들어 올 것을 짐작하고, 부지런히 군량을 준비하고, 병기와 전선을 수리하고, 군사들을 훈련시켰다. 한편 거북선까지 발명하여 왜적에 대비하고 있었다. 드디어 왜선이 새까맣게 부산으로 쳐 들어 오게 되니, 그 때 경상 우수사로 있던 원 균(元 均)은 이 순신 장군에게 구원을 청하였다. 원 균이 구원을 청하자 이 순신 장군은 의기 충천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아가 마침내 옥포 앞 바다에서 크게 싸워, 왜선 26 척을 부수고, 수많은 왜병들을 죽이니, 이 처음 싸움에 왜적의 의기는 완전히 꺾이고 말았다. 이어서 당포 해전, 한산 해전, 안골포 해전, 부산 해전 등, 우리 수군은 번번이 크게 이겨, 수백 척의 왜선을 불사르고, 무수한 왜병을 죽이니, 장군의 위공은 날로 커졌으며, 나라에서는 많은 벼슬을 장군에게 내렸다.

이러는 동안에 육지에서도 백성들이 점점 정신을 다시 차려, 각지에 의병(義兵)이 일어났으며, 한편 명 나라에서도 구원병이 오게 되매, 평양과 함경 도까지 들어 갔던 왜병들도, 점점 쫓겨서 몰려 나가기 시작하였다.

병신년——임진 왜난이 일어난 지 5 년째 되는 해—2 월에 일본과의 사이에 진행시켜 오던 강화 담판이 깨어져 버리자, 거제도에 머물러 있던 소서 행장이는 다시 조선 8 도(八道)를 발굽 아래 짓밟고 싶었다. 그러나 이 순신 장군이 거느리고 있는 우리 수군이 무서워 꼼짝을 못하고 있을 때다. 앞서 장군 밑에 있다가 충청 병사로 간 원 균이가, 장군을 몹시 시기하고 있는지라, 나라에 거짓 고자질을 하여, 장군에게 애매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제가 장군 대신 "삼도 통제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다. 장군은 서울로 잡혀 가, 옥중에서 고생하다가 스무 여드레만에 놓여 나왔으나, 전의 관직은 모조리 빼았기고, 백의(白衣)로, 권 률 원수 밑에서 종군하라는 명령이 내렸다. 그래서 장군은 전라 도로 압령(押領)되어 가는 도중에서, 장군의 고향 아산(牙山)에 홀로 계신 늙으신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으니, 장군은 뼈에 사모치는 슬픔과 원한을 가슴에 안고, 싸움터로 돌아 왔다.

제 11 장

수군 전멸(水軍 全滅)

이 순신 장군이 죄로 몰리어 서울로 잡혀 간 뒤, 그를 대신하여 삼도 수군 통제사(三道 水軍 統制使)가 된 것은 원 균(元 均)이다.

원 균은, 통제사가 되자, 그 즉시로, 이 순신 장군이 정하여 놓은 군중(軍中)의 모든 약속(約束)을 말끔 달리 고쳐 버렸다.

또 이 순신 장군이 이제까지 가장 신임하고, 가장 사랑하던 장수들은 모조리 파면(罷免)하여 버렸다.

그리고 "운주당"(運籌堂)을 한개 놀이 터로 만들어 버렸다.

이 "운주당"은, 일찌기 이 순신 장군이 만들어 놓은 것으로, 장군은, 매양, 이 곳에다 여러 장수들을 모아 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 수군을 더욱 강력(强力)하게 하여 볼까?
—어떻게 하면 왜적을 쳐 깨뜨릴 수가 있을까?

그러한 모든 방책(方策)을 토의(討議)하여 왔던 것이다.

이 "운주당"에는, 오직, 몇몇 장수들만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든지 자유로 드나들 수가 있었다. 좋은 의견(意見)이나 좋은 계획(計劃)을 가진 자라면, 일개 졸병(卒兵)이라 하더라도, 당당히 이 "운주당"에 들어와서, 장군에게 말씀을 할 수가 있었다.

그러하던 "운주당"이, 원 균이가 통제사로 내려 온 뒤로는, 그만, 한개 놀이터로 변하여 버린 것이다.

원 균은 이 곳에다 첩(妾)과 기생(妓生)들을 데려다 두고, 밤낮, 술 마시고 노는 것으로 일을 삼았다.

"운주당"을 겹 둘러 울타리를 하여 세우고, 군사들은 말도 말고, 장수들까지도 자기 허락 없이는 함부로 드나들지를 못하게 하여 놓았다.

그리고, 툭하면, 군사나 장교들을 잡아 들여다가 매질을 한다.

이러므로 하여, 온 군중(軍中)은, 모두 그를 배반(背反)할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소식은, 그대로, 왜

적의 귀에 들어 갔다.

원 균이가, 저의 재주껏 군사 일을 보살핀다 하더라도 이제는 왜적들이 우리 수군을 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을 터인데, 이것은, 밤으로 낮으로 술이나 먹고, 눈은 놀이에만 골몰이라고 한다.

"좋지 좋아! 꼭 그래야만 하느니……, 어디, 너희들, 혼 한번 나 보련?
……"

왜적들은, 이제야 말로 설욕(雪辱)을 할 좋은 기회가 이르렀다고, 속으로 기뻐하기를 마지않았다.

이러 하여, 그들은, 마침내, 크게 군사를 일으키어, 단번에 우리 수군을 쳐 무찌르려 일어 섰던 것이다.

일본 수군이 크게 이른다는 정보가 뒤를 이어 들어왔다.

그러나, 원 균은 그러한 정보를 받고도, 좀처럼 나서려고 않하였다.

그가, 이 순신 장군을 몰아 내고, 대신 통제사가 되기는, 오직, 그 영예(榮譽)로운 지위(地位)가 탐이 났기 때문이지, 결코, 수군을 통솔하여, 왜적을 물리치기 위함이 아니다.

"운주당" 안에서, 첩과 기생들을 데리고, 연해 술잔을 기울이며, 삼도 수군 통제사는 내로라—하고 거드럭거리고만 싶었지, 험한 바다 위로 배를 몰고 나가, 탄환과 화살이 빗발치 듯 하는 가운데서 목숨을 내어 놓고 왜적과 싸우기는 싫었다.

그러나, 그것은 안될 말이다.

앞서, 원 균이는, 왜적이 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순신 장군이 나가서 잡지 않았다고 무고(誣告)하여, 장군을 죄로 몰아 버린 터이다.

그러면서, 저는, 바로 눈앞에 왜적이 나오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체하여서 옳을까?

원 균은, 연해, 이 핑계 저 핑계하여 보았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한결같이, 어서 나가서 왜적과 싸우라고 엄한 분부다.

이제는 하는 수 없는 노릇이었다. 원 균은, 마침내, 전 함대(全 艦隊)를 거느리고 나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일본 수군과 만난 것은, 7 월 초닷샛날——, 칠천량(漆川梁) 바다에서다.

우선 첫 싸움에, 원 균은 왜적에게 패하고 말았다. 그는, 질겁을 하여, 그대로 한산도(閑山島)로 돌아 왔다.

그는, 다시는 나가서 싸울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남의 속도 모르고 권 률 원수(權 慄 元帥)는, 어서 나가 다시 싸우라고, 독촉(督促)이 성화(星火) 같다.

원 균은, 하는 수 없이, 초이렛날, 다시 수군을 거느리고 나갔다.

온 종일 배를 몰아 절영도(絶影島) 앞에 다달으니, 어느 틈엔가 날이 저물고, 때마침, 풍랑(風浪)이 크게 인다. 배를 대려하나, 마땅한 곳이 없다. 새벽에 한산도를 떠나, 잠시를 쉬지 않고 이 곳까지 오느라, 군사들은 지칠 대로 지치고, 또 기갈(飢渴)이 심하였다.

이제는, 배를 저어 앞으로 나아갈 기력도 없는 때, 문득 일본 수군이 전후좌우로 내달아 싸움을 청한다. 우리 전선은, 제각기,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서로, 어찌 할 바를 모르고, 갈 길을 못 찾은 채, 그대로 바다 위를 떠 돌았다.

원 균이, 무슨 수로 이를 수습하여 왜적과 싸워 보겠느냐? 그는 남은 전선만 거느리고 허둥지둥 가덕도(加德島)로 달아났다.

섬에 이르자, 군사들은 앞을 다투어 육지로 뛰어 올랐다. 우선 찾는 것은 물이다. 온 종일 물 구경을 못하여, 모두 목들이 탈 대로 탔다.

그러나, 가까스로 샘을 찾아, 마악 목들을 추기려는 때, 숲 속으로서 갑자기 아우성 소리가 크게 일며, 난데 없는 왜병들이 풍우 같이 내닫는다.

소스라쳐 놀라서, 다시 앞을 다투어 배로 올라 가니, 어두운 밤에, 서로 밀고 밀리고, 밟고 밟히며, 총에 맞고, 물에 떨어져 죽는 자가 수효를 모르겠고, 깨어진 전선이 또한 적지 않다.

원 균은 다시 황황히 그 곳을 떠나, 거제 칠천도(巨濟 漆川島)로 갔다. 그리고, 다시는 바다로 나가려 안하였다.

열 엿셋날 새벽이다.

일본 수군은, 마침내, 칠천도 앞 바다로 쳐 들어 왔다. 아무 준비가 없이 있다가 불의(不意)에 엄습(掩襲)을 받은 우리 수군은, 한 번 싸워 보기도 전에, 먼저, 도망할 궁리부터 하였다.

너도, 나도, 앞을 다투어 배를 버리고 육지로 달린다. 그러나, 군사들만 나무라면 무얼 하랴? 삼도 수군 통제사 원 균부터 제 한 목숨을 도망하기에 바빴던 것이다.

그 뒤를 왜병들이 쥐몰아 쳤다.

총 소리, 시윗 소리, 아우성 소리, 울부짖는 소리……

조선과 장마

조선은 비가 많이 오는 땅이 아니지마는 필요한 분량만큼은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는 겨울 동안에는 아주 적고, 여름 동안에 많이 오는데, 지방에 따라 일정하지는 않으나 대체로 6,7,8 월 세달 동안에 제일 많이 옵니다. 여름 동안에 여러 날 계속해서 퍼부어 오는 비를 장마라 하여, 사람들은 괴로와하나, 실상은 농사에 있어 유조한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조선의 벼 농사는 순전히 이 장마의 덕으로 짓게 되는 것입니다.

칠삼을 새 없이 전선들은 부서지고, 도망 갈 새 없이 군사들은 죽었다.

이 때, 통제사 원 균도, 군사들을 따라, 배를 버리고 육지로 도망하려 하였다. 그러나, 몸이 유달리 비둔(肥鈍)한 그다. 얼마를 못 가서 그는 다리가 아프고 숨이 가빠, 바닷가 소나무 아래에 가 엎어져 주저앉았다.

"왜병이 옵니다! 왜병이, 왜병이……"

군사들은 앞을 다투어 도망하며 외쳤다. 원 균은 겁에 띠운 눈을 들어, 바로 칼 앞에까지 이른 왜병들을 보았다. 그러나, 미처 손을 놀릴 사이도, 몸을 피할 겨를도 없었다.

함부루 내리치는 왜병의 칼날 아래, 원 균은 그만 어육(魚肉)이 되고 말았다.

이 날, 경상 우수사 배 설(慶尙右水使裵楔)은, 왜적이 이르는 것을 보자, 재빨리 수하 전선을 이끌고, 멀리 도망하여 버렸고, 전라 우수사 이 억기(全羅右水使李億祺)만이, 홀로 뒤에 남아, 죽기로 왜적과 싸우다가, 마침내, 범(帆)할 길이 없는 것을 알자, 스스로 바다에 몸을 던져, 그 생애(生涯)를 마치었다.

이로서, 우리 수군은 죽은 자가 수천 명이요, 전선은, 경상 우수사가 거느리고 도망한 열 두 척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조리 왜적의 손에 부서지고 만 것이다.

제 12 장

수군 재건(水軍再建)

이렇듯, 칠천도(漆川島) 한 번 싸움에, 전선 수백 척이 모조리 깨어지며, 통제사 원 균 이하로 많은 장수와 수천 명 군사가 죽어, 우리 삼도 수군(三道水軍)은, 마침내, 전멸(全滅)을 당하고 말았다.

이제는 넓은 바다 위에, 무어 하나, 거칠 것이 없다. 왜적은 평상한 기세로 서(西)으로 서으로 몰려 들어와서, 한산도(閑山島)를 단번에 무찌르고, 이어서, 남해(南海)·순천(順天) 등, 여러 고을을 차례로 함몰시켜 버렸다.

이로서, 경상(慶尙)·전라(全羅)의 연해안(沿海岸)이 그대로 몽땅 왜적의 세지다.

초계(草溪)에 있는 원수(元帥)의 진중(陣中)에서, 이 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전멸의 슬프고도 놀라운 소식을 전하여 들은 것은, 그로서 이틀 뒤 ——, 열 여드렛날 새벽이었다.

장군은 그대로 목을 놓아 울었다.

장군이 어떠 애를 쓰고, 온 정력(精力)을 다 기울이고, 온갖 신고(辛苦)를 다 겪으며, 가까스로 그만큼이나 키우고 북돋우어 온 수군이 전멸을 당하였다. 우리 나라가 믿고 있는 것이란, 오직, 수군 뿐인데, 이제 그 수군이 전멸을 당하였다.

왜적은 바다 위를 거침 없이 왕래하고, 마침내는 서해(西海)를 돌아, 한강(漢江)을 거슬러, 서울까지도 다시 무찌를 수가 있는 것이다.

(슬프다! 이 일을 장차 어이 하면 좋단 말인고? ……)

장군이 한창 통곡하기를 마지않을 때, 사람이 들어와서 고하되,

"원수(元帥)께서 오셨습니다.

다."

한다.

장군이 분주히 나가서 맞아 들이니, 원수는 미처 자리를 정하고 앉기도 전에, 장군의 손을 덥썩 잡고,

"소식을 들으셨소?……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요?"

"글쎄올시다!"

두 장군은 서로 바라보며, 한동안, 한탄하기를 마지않았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 이 순신 장군은, 비장(悲壯)한 빛을 얼굴에 띠우고, 비로소 입을 열었다.

"그 사이 어찌 되었는지, 우선, 소인이 연해(沿海) 각처를 두루 돌아, 모든 형편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다음에, 방책(方策)을 정할까 보이다."

이 말을 듣자, 권률 원수는 못내 기뻐하여,

"그렇게 좀 하여 주었으면 좋겠소. 일이 원체 급하니, 부디, 곧, 떠나도록 하오."

재삼 당부하기를 마치고, 원수는, 다시 총총히 돌아갔다.

이 순신 장군은, 즉시 행장을 수습하여, 군관(軍官) 8,9 명을 거느리고, 그 날로 길을 떠났다.

열 아흐렛날, 단성(丹城)

스무날, 진주(晋州).

스무 하룻날에는 곤양(昆陽)에 이르렀다. 관원들과 백성이 모두 달려 나와서 장군을 맞으며, 목을 놓아 통곡한다.

좋은 말로 위로하며, 이번 싸움에, 우리 수군이 전멸을 당한 까닭을 물으니, 모두 눈물을 뿌리며 말하기를,

"왜적을 보기만 하면, 대장이, 도망부터 먼저 하였기 때문이죠."

한다.

이 날 밤, 장군은 거제(巨済) 배 위에서 쉬기로 하였다. 그러나 어찌, 잠을 편히 이룰 수가 있으랴? 그 고을 현감과 더부러, 밤이 새도록 이야기하느라, 잠시라 눈을 붙이지 않아, 장군은 마침내 안질(眼疾)까지 얻었다.

8 월 초사흗날——

이른 아침에 선전관 양호(宣傳官 梁護)가 교유서(敎諭書)를 받들고 내려 왔다. 조정(朝廷)이, 장군에게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三道水軍統制使)를 제수(除授)한 것이다.

장군은 명을 받고, 다시 그 곳을 떠나, 초닷샛날, 옥과(玉果)에 이르렀다.

피란(避亂)하는 백성들로 길이 꽉 찼다. 장군은 말에서 내려, 그들을 좋은 말로 타이르고, 이튿날——, 군관 송 대립(宋大立)을 보내어 왜병의 정세(情勢)를 살피게 한 다음, 초이렛날, 순천(順天)을 향하여 떠났다.

그 날 밤은 곡성(谷城) 강가 정자에서 쉬고, 이튿날, 순천에 이르러 보니, 성 안

이 텅 비었다. 병사(兵使)는 군량(軍糧)과 병기(兵器)를 아무 처치(處置)도 안하고 버려 둔 채, 백성들보다도 먼저 멀리 도망을 한 것이다.

장군은, 총포(銃砲)와 같은 것은, 말끔 다른 곳으로 옮겨다 땅에 묻고, 장편전(長片箭)은 수하 군관에게 나누어 들린 다음에, 이틀날, 낙안(樂安)으로 갔다.

장군이 온다는 말을 듣고, 백성들이 오리 밖에 나와서 맞는다. 함께, 고을로 들어가 보니, 병화(兵火)의 자취가 처참(凄慘)도 하다. 관아(官衙)와 민가(民家)며, 창고(倉庫)와 곡식(穀食)이 모조리 불에 타서 차디찬 재만 남았다.

장군은, 다시 보성(寶城)을 향하여 떠났다.

십리 밖에 이르니, 장군을 맞으러 나온 백성들이, 길 좌우에 성을 이루었다. 장군을 보자, 제각기, 앞을 다투어, 쌀과 된장을 드린다.

"나는 있으니, 어서 너희들이나 도루 갖다가 먹어라!"

장군이 받지 않으면, 백성들은 울었다. 울며, 억지로 받아 주기를 청한다.

열 여드렛날, 회령포(會寧浦)에 이르렀다. 포구(浦口)에 매어 있는 전선(戰船)이 단지 열 두 척. 장군은 전라 우수사 김 억추(全羅右水使 金億秋)에게 분부하여 병선을 수습하게 하고, 이어서, 모든 장수들에게 영을 내렸다.

"우리가 다 같이 왕명(王命)을 받들었으니, 의리(義理)가 마땅히 함께 죽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바로, 국가(國家)의 존망(存亡)이 달려 있는 때——, 어찌, 한 번 죽어, 나라에 보답(報答)하기를 아낄까 보냐? 다만, 죽음이 있을 따름이다!"

듣는 자로서, 누구라 한 사람, 감동(感動) 않는 이가 없다.

때에, 장군은, 옥중(獄中)의 신고(辛苦)며, 상중(喪中)의 애통(哀痛)으로, 몸이 쇠약(衰弱)할 대로 쇠약한데다, 또, 수군(水軍)을 재건(再建)하느라, 연일, 동서(東西)로 분주(奔走)하여, 마침내, 곽란(霍亂)에 걸리었다.

그러나, 나라 일이 한창 급한 이 때, 어이, 내 한 몸을 돌볼 겨를이 있으랴?………

장군은 병을 무릅쓰고, 스무 나흗날에는, 난포(蘭浦)로 나아갔다.

스무 여드렛날이다.

왜선 여덟 척이 불의(不意)에 들어 와서 우리 배를 엄습(掩襲)하려 한다. 군사들이 모두 황겁(慌㤼)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경상 우수사 배 설(慶尙 右水使 裵 楔)도, 은근히, 도망 갈 뜻을 품는 눈치다.

장군은 전군(全軍)에 영을 내리어, 곧, 나팔을 불고, 기를 휘두르며, 배를 몰아 급히 내달았다. 왜적이 우리 기세에 겁을 내고, 뱃머리를 돌리어 달아난다.

장군은, 그 이틀날, 벽파진(碧波津)으로 나가 결진(結陣)하였다.

적의 수군이, 장차, 크게 이르리라는 풍문(風聞)이 날마다 들려 온다. 장군이, 한층더, 군사들을 단속(團束)하며, 싸움 준비에 침식(寢食)조차 잊고 있을 때, 9월 초이튿날 아침——, 군사가 황망히 들어 와서 보하되, 경상 우수사 배 설(裵 楔)이 어디론지 도망을 하여 버렸다 한다. 장군은 마음에 께씸하여 하기를 마지않으며, 여러 장수를 다시 모아, 재삼 약속(約束)을 분명히 하였다.

연일 북풍(北風)이 크게 불고, 그 바람이 겨우 자기 시작한 초이렛날 아침에, 적의 정세를 살피러 나갔던 군관이 급히 돌아 와 보하되, 왜선이 난포(蘭浦) 앞 바다에까지 들어 와 있다고 한다.

—계속—

원 균은 마침내 우리 수군을 전멸하게 하고 말았다.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가 된 이 순신 장군은 과연 우리 수군을 다시 세울 수가 있으며, 통우같이 밀려 오는 왜청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부터 또다시 이 장군의 눈부신 활약은 시작됩니다. 다음 호를 기다리십시오. (편집실)

어린이 새소식

50만 년 전에도 사람이 있었다

미국의 인류 학자 랄프·폰·퀘니쓰발트 박사와 그의 동료 일행은 난령 동인도(蘭領 東印度)에서, 7 년 동안이나 갖은 고생과 굶주려 가며, 먼 옛날 사람의 해골 두 개와 그에 관련한 증거품을 모으는데 성공하였다. 미국 하아바아드 대학 인류 학자들은, 퀘 박사가 가지고 간 두 해골과 증거품에 의하여 연구한 결과, "50만 년 전에도 지금 사람과 거의 비슷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 말하였다. 또 퀘니쓰발트 박사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50만 년 전에 인류가 이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하고 싶다. 그것은 대부분 자바에서 모아 온 이 두 해골이, 맨 처음 사람은 지금 호주(濠洲)에 살고 있는 원주민과 비슷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0만 명에 의사가 한 사람

—남 조선의 의료 시설—

보건 후생 부(保健 厚生 部)에서 1947 년 3 월 말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 조선에는 의사가 2,829 명, 의생이 2,059 명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대부분은 도시에 모여 있으므로, 농촌의 의료 시설(醫療 施設)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형편이다.

즉 남 조선에서는 의사 한 사람에 8,646 명의 사람이 딸리게 되는 셈인데, 이것도 도시와 농촌을 합해서 한 계산이니까 나은 편이고, 만일 도시를 제외하고 지방만을 따져 본다면 사람 수로 약 8만 명에서부터 10만 명에 의사가 한 사람 색 있는 셈이라고 한다.

각 도 중 제일 의사가 많은 곳이 충북인데, 771 명에 의사와 의생이 한 사람씩 딸리게 되고 제일 적은 곳은 전북으로 14,153 명에 의사와 의생 합해서 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연 의사가 없는 면(面)이 1,441 군데나 되고, 그 중에 의사는 없고 의생만 있는 면이 954 군데라고 한다. 이것을 세계 문명 국에 비해 보면 미국은 사람 수로 1,000 명에 한 사람, 일본은 1,150 명에 한 사람씩 의사가 있다고 하니, 우리 조선은 참으로 이제부터 의료 시설에 더욱더욱 힘을 써서, 인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꾀하여야 하겠다.

남, 북 조선의 인구 수 (1947. 5. 1)

	1944 년도	1947 년도
38 이북	9,173,893	6,863,458
38 이남	15,946,231	16,903,043
모 두	25,120,174	26,771,501

8. 이후 귀화 동포 수 (1947. 5. 1)

	일본에서	만주에서	중국에서
38 이북	480,000	1,120,000	160,00
38 이남	720,000	280,000	40,000
모 두	1,200,000	1,4 0, 0	200,000

플라나간 신부가 말하는 조선의 어린이들

"소년의 거리"를 만들고, 불행한 어린이들을 사랑하기로 유명한 미국 플라나간 신부는 두 달 동안 조선과 일본을 시찰하고, 지난 6 월 17 일 서아틀로 돌아갔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전해 온 소식에 의하면 플라나간 신부는 조선의 어린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지금 남 조선에 있어서의 어린이를 위한 모든 일은,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잘 되어 간다고 할 수 없다. 남 조선은 다른 해방된 나라들과 같이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사업도 점점 더 복잡해 가고 있다. 일본에 비교해 보더라도 조선의 어린이는 말할 수 없이 천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 소학생 작품 모집 ★

소학생 여러 분의 작품을 모집합니다. 작문, 동요, 일기 [illegible] 무엇이고 좋습니다. 어른 [illegible] 안에 [illegible] 지어서 보내 주십시오. 잘된 것은 "소학생"에 [illegible] 또 [illegible] 드립니다. (편집실)

이 영철 선생 지은

"틀리기 쉬운 말"

김 소 엽

작년에 "학생 조선어 사전"을 주어 주신 이 영철 선생께서 이번에 또다시 "틀리기 쉬운 말"이란 책을 내어 주셨다.

해방 후 이때 동안 우리는 얼마나 지성스레, 잊었던 잃었던 우리의 말을 다시 찾아 내기에 피나는 노력을 해 왔던가? 우리는 하루 바삐 우리의 말과 글을 깨치고 닦기에 누구나 힘을 써 오는 중이나 원체 이 일이 급방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고, 따라 우리는 두시로 또 좋은 공부를 서로 해 나아가야 된다. 우리 말을 갈고 닦아 놓은 허다한 지식와 문헌이 우리의 앞 길을 밝혀 주고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는 것도 사실이지마는, 거의 그 모두가 너무 전문적이어서 실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기에는 동이 떨어진 것이 또한 많았다.

새로 나온 좋은 책

이 때에 아침 저녁으로 쓰는 우리 말 가운데서 자칫하면 혼동을 일으켜 잘 못 쓰기 쉽고 틀리기 쉬운 말들은 모조리 추려 모아 일일이 친절한 설명을 붙이어 놓은 이번 이 "틀리기 쉬운 말"이야말로 누구나 읽어 두어 속히 알고 깨치는데 큰 도움이 될 책이라고 믿는다. (조선 아동 문화 협회 발행. 값 80 원)

"사랑의 선물"을 읽고

김 철 수

"어린이는 조선의 꽃"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는 조선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는 조선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여러 분 어린이들에게 좋은 아름다운 "사랑의 선물"이 있습니다. 전에 돌아가신 그리고 여러 분도 잘 아시는 소파 방 정환(小波 方 定煥) 선생님이 써 놓고 가신 세계 명작 동화집 "사랑의 선물"입니다. 이번에 이것이 두 권으로 나뉘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벌써 20 년 가까운 옛날 제가 여러 분만한 나이였을 때, 그 방 선생님의 "사랑의 선물"을 밤을 새워 가며 감격에 눈물 흘리던 일이 엊그제께 일 같습니다. 하나 하나의 그 모든 얘기가 진정으로 사랑과 감격 없이는 읽을 수 없고 그러므로 그 모든 얘기가 읽는 우리들의 일 같이 생각되어 책을 놓지 못하고 자나 깨나 지니고 다녔던 것입니다.

"학대 받고 짓밟히고 차고 어두운 속에서, 우리처럼 또 자라는 불쌍한 어린 영들을 위하여 그윽히 동정하고 아끼는 사랑의 첫 선물로 나는 이 책을 짰습니다."

"사랑의 선물" 맨 앞에 쓰여진 방 선생님의 말씀이십니다. (박문 출판사 발행. 상권 60 원, 하권 60 원)

보기만 하고 무게를 아는

기억력의 천재

지금 쏘련에는 쉐레브스키라는 기억력(記憶力)이 좋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는 어느 대학의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를 상대로 30 년 동안이나 연구하여 온 안헬·루리아 교수는 그 간 연구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고 한다.

"지금 나의 방법으로는 그의 기억력이 과연 얼마만한 것인지 알 길이 없는데, 하여간 그는 10 년 전에 한 번 들은 이야기를 하나 틀리지 않고 꼭 그대로 옮겨 말할 수 있으며, 외국어 책이라도 한 페이지쯤은 오랫동안을 기억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는 무슨 물건이고 볼 때, 그 물건의 색채는 물론이요, 온도, 무게까지도 다 감각(感覺)할 수 있다. 이 것을 심리학(心理學) 상으로는 반생감각(伴生感覺)이라고 하는데, 신경(神經)이 예민한 사람 가운데에 때때로 보는 현상이다. 전에 스크랴빈이란 작곡가(作曲家)는 색채와 선의 밝고 움직이는 것을 생각하여 작곡 했다고 하지만, 이 쉐레브스키의 연구야 말로 중요하고도 흥미있는 일이다."

연달아 들려 오는 반가운 소식

세계 올림픽에 조선 참가 결정

3 천만 동포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민주 독립은, 지난 5 월 21 일 서울에서 미·쏘 공동 위원회가 다시 열린 이래, 두 나라 대표들의 끊임 없는 노력과 성의로써 멀지 않은 앞날에 이루

휘지게 되어 다같이 기뻐하는 이 때에, 멀리 서전(瑞典)·스톡호름에서는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들어 왔다. 즉 래년 (1948)에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올림픽 경기 대회에 참가할 나라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인 "국제 올림픽 위원회"에서는 지난 21 일 우리가 갈망하는 올림픽 대회에 조선도 당당히 참가할 것을 정식으로 승인하였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온 것이다. 이것으로써 세계 운동 사상에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우리 조선 젊은이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와 어깨를 겨누고 싸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 발견한 "탕그스텐"광

요전에 강원 도 상동 (上東)에서 세계에서도 손 꼽을만한 "탕그스텐" 광상(鑛床)이 발견되었다. 그 광산에는 1만 톤 이상의 광석이 있으며, 백달 60 퍼센 나 들어 있는 "탕그스텐" 백색을 파 내고 있다 한다. 그 이 밖에 앞으로 10 년 동안, 조선에서 쓰는 수량을 채울 있는 철광이 있다 하며, 다섯 데에 또 우수한 동광(銅鑛)이 다고 한다. 우리는 자꾸 여러 지 필요한 철광을 캐 내어서 선의 과학을 발달 시키는데 아만 할 것이다.

제2회 소학생 작문·동요 당선자 발표 (작품들은 소학생 6월치에)

작 문

특 등	나의 발견장	(상품과 상금 3,000 원)	포항 남부 국민학교 6 년	김 종
우 등	1. 내 이름	(상품과 상금 1,000 원)	청주 서부 국민학교 6 년	김 혜수
	2. 서울로 간 동무에게	(상품과 상금 1,000 원)	청주 서부 국민학교 4 년	이 현자

입 선 (각 상품과 상금 500 원)

1. 꾸디 꾸디 봄 조심	청주 서호 국민학교 6 년	김 창초	4. 새발 자전거	군산 중앙 국민학교 3 년	김 양
2. 과자	대구 칠성 국민학교 2 년	변 지호	5. 독립	서울 창신 국민학교 5 년	김 기
3. 가게	대전 신흥 국민학교	정 정희	6. 예쁜 토끼	곡성 목사동 서 국민학교 4 년	박 경

동 요

특 등	나룻배	(상품과 상금 3,000 원)	서울 사범 대학 부속 중앙 국민학교 3 년	이 종
우 등	1. 나뭇길	(상품과 상금 1,000 원)	대구 칠성 국민학교 4 년	서 상근
	2. 산골의 봄	(상품과 상금 1,000 원)	청양 백석 국민학교 5 년	한 혜수
	3. 회오리 바람	(상품과 상금 1,000 원)	서울 사범 대학 부속 중앙 국민학교 5 년	최 인
	4. 봄 밭	(상품과 상금 1,000 원)	서울 마포 국민학교 3 년	윤 은
	5. 새 아침	(상품과 상금 1,000 원)	대구 칠성 국민학교 4 년	강 상

입 선 (각 상품과 상금 500 원)

1. 내 동생	부산진 국민학교 1 년	이 충민	5. 버들잎	경기 양주 국민학교 6 년	노 희
2. 제비	개성 헌정 국민학교 3 년	박 경호	6. 아가 토끼	서울 경희 국민학교 4 년	이 동
3. 저녁 노래	대구 칠성 국민학교 4 년	서 상근	7. 소	부천 계양 국민학교 5 년	박 순
4. 끝이 없다면	연백 용매 국민학교 4 년	지 관옥	8. 개구리	영월 주천 국민학교 4 년	임 영수

기상에 쓰는 말뜻 ③

심 재 선

(ㅈ)

저기압(低氣壓)

근처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말하며, 원래 기압이 낮은 곳은 사방으로부터 바람이 모여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람 계통을 저기압이라고 부르며, 우리 나라 부근에서는 선풍, 태풍 등의 두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으로 저기압이 닥쳐 오게 되면 구름이 끼고 비, 또는 눈이 내리며 몹시 좋지 못한 일기가 되는 것입니다

증발량(蒸發量)

물이 증발하는 깊이를 "밀리"(粍)로 표한 것이며, 그 재는 그릇을 증발계(蒸發計 라고 부릅니다.

(ㅊ)

천기도 天氣圖)

천기 상태를 지도 위에 적어 넣은 것이며 기압, 기온, 바람쪽(風向), 바람의 속도, 구름의 종류, 우량 등을 각 측후소에서 전부 모아 적어 넣고, 등압선 등을 그리어서 일기 예보를 내는 자료(資料)로 하고 있습니다.

천기(天氣)

어느 곳에 있어서 임의(任意)의 시간의 하늘 모양을 천기라고 말합니다.

최고 한난계(最高 寒暖計)

어느 시간 안의 가장 높은 온도를 재기 위한 한난계입니다.

최저 한난계(最低 寒暖計)

어느 시간 안의 가장 낮은 온도를 재기 위한 한난계를 말합니다.

(ㅋ)

쾌청(快晴)

운량(雲量)이 하늘의 10분의 2 이하일 때의 하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ㅌ)

태풍(颱風)

남양 지방게 생기는 저기압을 말하며, 비도(比島) 동쪽 바다, 또는 남양 군도 북쪽 바다게 발생합니다. 7 월부터 10 월까지 사이에 많이 생깁니다. 여름 또는 가을에 모진 바람과 함께 많은 강수량을 주는 일이 있으니, 이러한 것은 태풍이 지나 갈 때 많이 일어 나는 일입니다. 천기도에서 보면 그 등압선은 대강 동그린 형(形)을 하고 있어, 직경은 200km부터 1.000km 이상이나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리켕

서쪽 인도 제도 부근 같은 열대 지방의 폭풍을 말한 것이며, 우리 나라의 태풍 같은 저기압입니다.

흙비(黃沙)

4,5 월에 하늘이 노란 빛으로 흐리며, 며칠 씩 계속하여 날씨가 이상한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흙비라고 부르고, 중국 황하(黃河) 부근에 있는 황토가 저기압의 바람에 날려, 하늘 높이 떠올라 날아 오는 것입니다.(끝)

★만일 인력(引力)이 없다면……★

만일 인력이 없는 세계가 있다고 하면, 그 곳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다.

○공기에 물을 담아서 거꾸로 들어도 물은 쏟아지지 않습니다.

○몇 천 톤, 몇 만 톤이나 되는 큰 바위도, 손 끝으로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근들거립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 내리려고 해도,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가만히 떠 있게 됩니다.

○비도 안 오고, 눈도 안 옵니다.

○비행기가 떨어지는 일도 없습니다.

○모자나 옷을 걸어고, 기둥에 못을 박을 필요도 없습니다. 물건을 기둥에다 갖다 대기만 하면 붙어 있게 됩니다.

○폭포수도 내리지 않고, 시냇물도 흐르지 않습니다.

○공기도 없어지니까 물론 사람도 죽게 됩니다.

취미오락실

무서운 곱수 (倍數)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것은 한 달 동안 저금을 하면 되는 것인데, 첫 날은 1 전만 합니다. 그 다음 날은 2 전 또 다음 날은 4 전 —— 이렇게 곱 갑절 씩만 해 나아갑니다. 그러면 한 달 서른 하루를 친다면 맨 나중에 모인 돈은, 놀라지 마십시오, 21,474,836 원 47 전이란 엄청난 돈이 됩니다. 이만하면 부자가 아닙니까?

★ 웃기 내기 ★

여러 사람이 두 패로 나뉩니다. 그리고 어느 편에도 끼지 않은 사람이 심판이 되어 가운데(양편 끝 끝) 앉습니다. 심판이 성냥갑이나 무슨 상자갑을 보이면서,

"내가 이 상자를 던져서 거죽이 나오면 왼 편이 웃어야 합니다. 뒤가 나오면 오른 편이 웃어야 합니다. 만일 웃어야 할 터인데 안 웃는다든지, 웃지 않아야 할 터인데 웃는다든지 하면 엄벌에 처할 터입니다."

이렇게 호령을 하고 시작합니다. 어쨌든 한 편이 곱이 웃으니까, 도무지 어색한 웃음이 나올 것이고, 한 편 안 웃는 쪽에서는 저절로 웃음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더구나 남자와 여자와 갈라서 하면 더 재미있습니다.

규칙 위반한 사람은 벌로, 노래든지 춤이든지 추어야 합니다.

크로스워드 풀기 · 본보기

"크로스워드"는 길이와 가로 줄을 그은 네모진 여러 구간 속에 문제에 내어진 열쇠로 추측한 글자를 서로 길이와 가로 써 넣어 맞춰서 말을 꾸며 내는 퍽 재미 있는 놀이입니다. 본 보기 문제를 잘 보시고 다음에 있는 새 문제를 풀어 보십시오.

본보기 문제

[길이로 푸는 열쇠]

①종교 신자가 모여서 예배하는 집.
②물건을 파는 것.
④왜놈이 쳐서 우리 나라에서 쫓겨 간 나라.
⑥해수 욕장으로 유명한 38 이북의 항구.
⑧바느질 할 때 손가락에 끼는 물건.
⑨서울 한 복판에 서있는 조선에서도 유명한 탑이 있는 동네 이름.
⑪풀이 많이 나서 얼크러진 곳.

[가로 푸는 열쇠]

①학교에서 제일 높은 어른.
③일주일 동안에 쉬는 날.
⑤회사에서 일보는 사람.
⑦산과 산 사이에 우묵히 꺼진 곳.
⑩송장을 묻은 곳.
⑫품팔이 하며 사는 사람.

1 교	2 장	■	3 공	4 일
5 회	사	6 원	■	본
당	■	7 산	8 골	■
■	9 탑	■	10 무	11 덤
12 노	동	자	■	불

크로스워드풀기 · 새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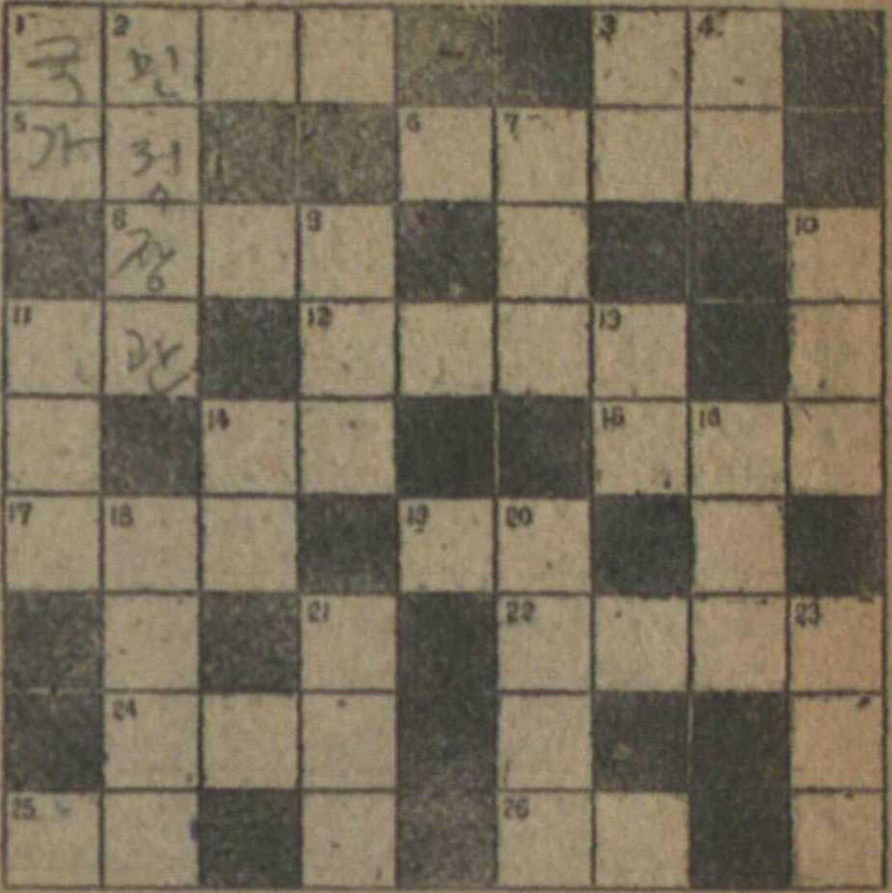
[길이로 푸는 열쇠]

①나라의 노래.
②러치 소장은 군정 장관, 안재홍 선생은?
③빌어 먹는 것.
④쌀, 좁쌀들에 물을 많이 붓고 끓이어 써서 말지어 먹는 음식.
⑤여러 분이 애독하는 잡지 이름.
⑥쇠 물건을 만드는 일터.
⑧참깨에서 짠 것으로 음식 만들 때 긴하게 쓰는 것.
⑨글씨를 배울 때 보고 쓰는 책.
⑩침을 놓아 주는 사람.
⑪옷을 만드는 천.
⑬입(口)을 천하게 말할 때 무어라고 부르나?
⑭지금으로부터 355년 전 일본의 풍신 수길(豊臣 秀吉)이가, 많은 사람 거느리고 우리 조선으로 쳐 들어 온 일이 있는데 그것을 무슨 전쟁이라고 하나?
⑯국어를 배우는 교과서 책.
⑱커다란 물결.
⑳날아 다니는 짐승.

[가로 푸는 열쇠]

①그전 보통 학교를 요즘 부르는 말로.
⑤소련과 아메리카를 가리켜서 말할 때는?
⑦식구들이 모여 사는 집안.
⑧황소처럼 느리게 걷는 걸음.
⑨봄은 춘절이라고 하고 여름에 비가 여럿이 내릴 때를 무슨 철이라고 하나?
⑫저 아이는 포켓에 손을 넣지 말래도 자꾸 모르는 사이에 손을 넣는다. 왜?
⑮여러 사람이 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
⑯손 넣는 데를 뭐라고 하나?
⑰토지 가옥의 매매 또는 세차(貰借)를 소개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⑲몸이 피로와도 하던 일은 끝까지 해 버리는 것을 무엇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나?
㉑워싱톤은 어느 나라 서울인가?
㉒매년 5월 5일은 무슨 날일까?
㉔해방 전까지 우리 조선 사람들을 못 살게 굴던 놈들.
㉕돈 적고 먹은 것도 적은 것.
㉖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여 준 표지의 조각.

(해답은 다음 호에)



★소년 지식★

몸에 이로운 파와 날 무

파는 위(胃)에 들어 가면, 위에 있는 신경을 몹시 자극해서, 소화(消化)를 잘 시킵니다. 그 뿐 아니라 전염병 예방도 되고, 생선에 중독 되었을 때의 약도 됩니다.

무는 "비타민 C"도 많거니와 음식의 소화를 돕는 "지아스타제"란 것이 많이 들어 있어서, 사람에게 가장 이로운 채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익혀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시 간

아저씨 "복남아, 지금 몇 시냐?"
복남이 "반에요."
아저씨 "몇 시 반?"
복남이 "그건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바늘 한 개가 없어졌어요. (서울 종로교 5의 1 이 종욱)

○거지의 돈

거지 "나리 돈 떨어뜨리셨지요?"
신사 "아아니, 여기 있는걸.
거지 "네, 그럼 한 장 동정해 주십시오."
신사 "?" (서울 방산교 6의 2 고 기덕)

○신 문

일남 "아버지, 신문엔 뭣이 써 있어요?"
아버지 "어제 일어난 일이 전부 써 있다."
일남 "그럼, 어제 엄마가 아기 난 것도 써 했어요?"" (경남 마산 오 영식)

○지 구

이쁜아 "아버지, 지구도 별이지요?"
아버지 "그래, 지구도 별의 하나다."
이쁜이 "그런데 어째서 지구는 반짝거리지 않아요? (서울 돈암교 천 수강)

○무거운 짐

옛날 한 사람이 콩 열 말을 소에 실려 가지고 장으로 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소가 허덕이는 것을 보고, 콩 너 말을 덜어서 자기가 짊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인제 가벼워졌으니 나좀 타고 가자" 하고, 콩 너 말을 짊어진 채 소 등에 올라 탔더랍니다. (서울 일신교 박 종철)

얼마나 빨리 풀겠나?

★척척박사가 낸 문제들★

①둥근 산에 구멍 일곱은 무엇?
②머리가 잘못한 것을 꽁무니가 고쳐 주는 것은?
③땅떵이를 눈보다 높이 치키려면?
④높은 데로 떨어지는 것은?
⑤1에서 9까지의 숫자 중에서 둘로 쪼개면 0이 되는 것은?
⑥옷을 여러 겹 입었다가 정말 소용될 때는 벌거숭이가 되는 건?
⑦어느 집에든지 셋이 있는데, 온 세상에도 셋 밖에 없는 것은?
⑧장작 세 개가 있는 데, 쪼개지 말고 세 사람이 두 개씩 들려면?

(대답은 14 페이지에)

(問) 척척박사님, 그 동안 어디가 숨어 계셨기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까? 저희들은 척척박사가 아주 도망가신 줄 알았습니다. 도망은 안 가셨다고요?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 보세요. 몸은 셋인데 공중을 한 번 올라 갔다 내려 오면, 어떤 놈은 재쳐지고 어떤 놈은 엎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울 재동교 민 석기)

(答) 사실은 이런 쉬운 문제들만 가져 오니까 노곤지, 하품만 나고, 나중에는 화가 나서 문을 닫고 집에 꼭 누워 있었네. 참 "소학생" 독자들처럼 어려운 문제를 낼 줄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야. 자네가 물은 것은 윷. (척척박사)

(問) 이번엔 내가 하나 묻지요. 주고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주 엥정 이 영식)

(答) 선생님이 여러 분에게 많은 "지식"을 주시지만 그렇다고 선생님의 지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선생님에게 감사해야 돼. (척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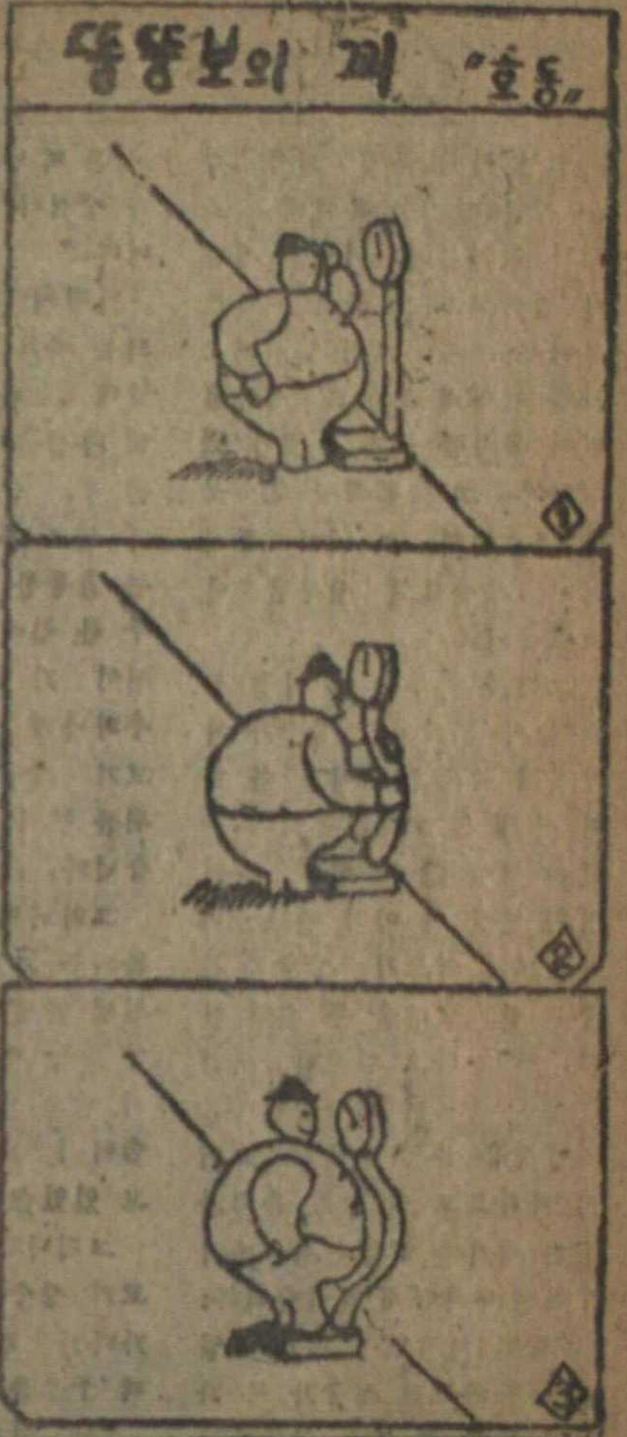
(問) 눈으로 안 보고 입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동이)

(答) 서동이, 아무리 독자들이 쉬운 문제를 가지고 온다고 자네까지 이런 문제로 나를 조롱하는 셈인가? 그것은 맛보는 것이지 뭐야. (척척박사)

(問) 척척박사님 안녕하세요. 이번엔 제가 실험한 것을 한 가지 물을 테니 척척 알아내세요. 척척박사라도 아마 잘 모르실걸요. 비루병을 물 속에 거꾸로 세워도 물이 병 속으로 들어 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상주 최 만희)

(答) 이 사람아, 나도 자네만 했을 적엔 한 번 해 본 적이 있네. 어떻게 하는고 하니 비루병에다가 연기를 하나 가득 담아 가지고 물 속에다가 거꾸로 세워 보게. 물이 잘 들어 갈 테니 (척척박사)

배가 늘어진 초상화 '수선'


뚱뚱보의 꾀 "호동"

'수선'
염려 마십쇼
보십쇼, 어떻습니까?

동화 장난군 돔쇠 박 영 식

옛날 어떤 곳에 괴사스럽고 장난 잘하는 돔쇠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너무도 장난이 심하고 하도 몹시 괴사를 부리는 고로, 그의 아버지는 그만 어떻게 귀찮고 성가셨던지 돔쇠를 집에서 쫓아 냈습니다. 그래 돔쇠는 갈 곳이 없으니까, 그 너머 동네 어떤 부잣집의 심부름군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그 이웃 동네에 사는 쇠고기 장수가 이 부잣집 목장으로 양을 한 마리 사러 온 고로, 돔쇠의 주인은 돈을 많이 받고 자기 집의 양을 한 마리 팔았습니다. 그래 쇠고기 장수는 돈 주고 산 그 양을 두 손에 안고, 말을 타고 천천히 자기 동네를 향하여 떠났습니다.

이것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던 돔쇠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자기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 영감님! 내가 만일 지금 쇠고기 장수가 사 가지고 간 저 양을 감쪽같이 도로 빼앗아 올 터이니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거야 될 말이냐? 만약 네가 지금 말한 대로 정말 그렇게만 해올 수 있다면 내 돈 백 냥을 주마."

하고, 주인은 되지 못한 짓이라고 비웃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당장 가서 감쪽같이 빼앗아 올 터이니 돈 백 냥을 꽉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돔쇠는 자기 주인에게 단단히 다짐을 받은 후, 주인이 신고 다니는 훌륭한 구두 한 켤레를 집어 가지고 부리나케 쇠고기 장수의 뒤를 쫓아 갔습니다.

그리하여 돔쇠는 그 쇠고기 장수보다 훨씬 앞질러서, 가지고 간 구두 한 짝은 길에다 내 던져 놓고, 그 옆 수풀 속에 숨어서 가만히 동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쇠고기 장수가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길에 떨어진 그 한 짝 구두를 보고,

"야, 이거야말로 참말 훌륭한 구두로 구나, 그러나 어째 한 짝만 떨어저 있을까? 아무리 좋아도 이까짓 한 짝 구두야 가지고 가서 소용이 있나?"

하면서 그냥 말을 타고 터벅터벅 걸어 갔습니다.

돔쇠는 얼른 풀숲에서 나와서 달음박질하여 쇠고기 장수보다 또 앞질러 뛰어 가서, 한 짝 남은 구두를 또 길가에다 내던지고, 길가 풀숲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에 쇠고기 장수가 또 말을 타고 터벅터벅 걸어 오더니, 길가에 떨어진 구두 한 짝을 보고,

"옳지, 아까 그 구두가 어째 한 짝인가 했더니, 한 짝은 여기 와 떨어졌구나. 그럼 아까 그놈하고 두 짝이 다 있으니, 아까 그놈을 마저 집어 가지고 가야겠다."

생각하고, 쇠고기 장수는 너무도 좋아서 얼른 말에서 뛰어 내려, 양의 발목을 길 옆 나무에다 단단히 붙잡아 맨 후, 아까 그냥 지나쳐 온 그 구두 한 짝을 마저 집으러 오던 길로 달음질해 갔습니다

다. 이것을 본 돌쇠는,

"옳다. 되었다."

하고, 얼른 풀숲에서 뛰어 나와 나무에 매어 놓은 양을 안고 빨리 집으로 와서 주인 부자에게,

"자, 주인 영감님! 약속대로 양을 이렇게 감쪽같이 도로 가져 왔으니 어서 돈 백 냥을 내시오."

하였습니다. 주인 부자도 할 수 없이 웃으면서 돈 백 냥을 돌쇠에게 주었습니다.

쇠고기 장수는 헐레벌떡 헌 구두 한 짝을 찾아 가지고 부리나케 와 보니까 큰일 났습니다. 나무에 매어 두었던 양이 간 곳이 없는 고로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일까? 발목을 단단히 매어 놓았던 것이 모양갈이도 없는데……"

하며, 이곳 저곳을 풀숲까지 아무리 찾아 보았으나, 돌쇠가 가지고 간 양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 이러는 동안에 어느덧 해가 지고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찾으려 해도 어두워서 도무지 찾을 수 없을 줄 알고, 쇠고기 장수는 할 수 없이 다시 돌쇠의 주인 집으로 돌아 와서 주인을 보고,

"원 이런 일도 있습니까? 아까 댁에서 양을 사 가지고 가는 길에 그만 잃어 버렸어요. 원 이런 분할 데가 있습니까? 생, 생, 어쩔 수 있습니까? 또 한 마리 파십시오."

하였습니다.

장난군 돌쇠는 이 소리를 듣고, 얼른 풀감으로 아까 빼앗아 가지고 온 그 양의 얼굴에다 여러 가지 색칠을 하여 아주 다른 양과 같이 만든 후, 이것을 또 쇠고기 장수에게 팔았습니다.

쇠고기 장수는 또 아까와 같이 양을 안고 말을 타고 터벅터벅 돌아 갔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돌쇠는 또 주인에게,

"주인 영감님, 내가 또 저 양을 감쪽같이 빼앗아 올 터이니 이번에는 얼마나 주실 터입니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부자는,

"흥, 이번에야 될 수가 있나?"

생각하고,

"만일 이번에도 또 감쪽같이 빼앗아만 온다면 2백 냥을 주마."

하였습니다.

"예, 2백 냥요. 정말 2백 냥입니까?"

하고, 돌쇠는 또 달음질하여 그 쇠고기 장수의 뒤를 부리나케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옆 길로 돌아 가서 그 쇠고기 장수보다 훨씬 앞서 가서, 바로 아까 그 양을 빼앗아 가던 풀밭에 숨어서, 쇠고기 장수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

(그림·김 의환)

마 후에 쇠고기 장수가 말을 타고 터벅터벅 걸어 왔습니다.

바로 그 때입니다. 율쇠는 무슨 꾀를 생각했는지 얼른 입에다가 두 손을 대고 아주 묘하게 양의 울음 소리를 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쇠고기 장수는 두 귀가 번쩍하여,

"야, 이것은 아마 아까 잃어 버린 양이 먹을 것은 없고, 잘 곳도 없고 해서 저렇게 울고 있는가 보다. 얼른 가서 붙잡아야겠군."

하고, 급히 말에서 뛰어 내리어 안고 있던 양은 다시 길옆 나무에다 붙잡아 매어 놓고, 풀밭으로 뛰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곳 저곳으로 아무리 찾아 보아도 양은 커녕 양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럴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양의 소리가 아니고 율쇠가 양의 소리를 낸 것이니, 양이 있을 이치가 없지요.

그 틈을 타서 율쇠는 얼른 풀숲에서 뛰어 뛰어 나와 길가 나무에 매어 놓은 양을 또 잡작잡이 집어 가지고 주인 집으로 돌아 왔습니다.

쇠고기 장수는 아무리 풀밭과 숲 속을 찾아 보아도 양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우멀우멀하면서 도로 길가에까지 나와 보니까, 아, 또 양이 없어졌겠지요. 쇠고기 장수는 그만 기가 막히고 눈이 번쩍 뒤집혀서,

"엥, 엥." 소리만 치고 집으로 돌아 갔습니다.

율쇠는 그 돈 8백냥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 와서,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잘 살았다 합니다.

이솝 이야기 잔치집에 간 개

주인이 어느 날 저녁에 손님들을 청해서 잔치를 차렸습니다. 주인집 개가 저희 동무를 만났습니다.

"꼭 와요 응. 맛있는 음식이 많이 있으니 같이 먹어요."

그 개는 좋아하며 따라 왔습니다. 그는 얼른 부엌 앞에 도그리고 앉아서, 맛난 음식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로, "정말 푸짐한 음식이로구나. 정말 이건 고마운 일이구나. 전부 다 저렇게 맛있는 것 뿐이겠지. 한번 마음껏 먹어 보자. 내일 아무 것도 안 먹어도 괜찮을만큼 많이 먹어야지." 그는 꼬리를 치며 부엌에 들어 가서, 주인집 개에게 눈짓을 하며, 음식이 언제나 나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덥썩덥썩 움직이는 꼬리가 일하던 사람 눈에 띄었습니다. 한번 보지도 못한 개가 부엌에 들어 와 있으므로, "이 망할놈의 개"하고 뒤로 집어 던져 버렸습니다. 주인집 개가 얼른 뒤으로 달려 와서 그 개에게 물었습니다. "음식 맛이 어떻어? 맛있었어?"

그 개는 한 쪽의 웃음을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어찌 정신 없이 먹었던지, 그 집 어디로 나왔는지도 모를 지경일세."

어느 때 겨울이었습니다. 하늘에선 새털 같이 하얀 눈이 펄펄 쏟아져 내리고, 땅 위에는 바람까지 사납게 불어서, 눈을 뜰 수가 없이 무섭게 추운 날인데, 못생기고 엉큼한 도둑놈 한 사람이, 어떤 집으로 도둑질을 하러 들어 갔습니다.

그 때, 마침 그 집 주인 두 양주가 날이 하도 추워서 아직 잠자지 않고 있다가,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는 고로, 도둑이 무엇을 훔치러 온 줄 알고, 두 양주는 얼른 한 꾀를 내어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남편 "여보, 요사이 자세에 도둑이 성하여 도무지 마음을 놓고 잘 수가 없다는구료. 그런데 도둑놈의 수단이 어떻게 묘한지 아무리 눈을 홉뜨고 지켜도 물건은 물건 대로 잃어 버린다는걸……"

아내 "아이고, 어떻게……"

남편 "그, 방법은 이렇다네! 도둑이 어느 집이고 몰래 들어가서, 만일 그 집 주인이 잠이 들지 않았으면, 자기의 입고 있던 의복은 모두 벗어서 마루에 있는 기둥에다 잔뜩 죄고서, 제기만 하면, 아무리 눈을 뜨고 도둑놈을 지키던 사람이라도, 그만 자기도 모르게 잠이 스르르 들어 버린대요. 그러면 도둑놈이 아무리 수선을 피우면서 세간을 집어 가도 도무지 모른다는걸."

아내 "아이고, 참 신통한 재주구려…… 그런데 만일 우리 집에 도둑놈이 들어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오?"

도둑놈이 이 소리를 밖에서 죄다 듣고 있다가,

"옳다, 되었다."

하고, 속으로 몹시 좋아하면서 입은 입고 있던 옷을 모조리 벗어서 마루 기둥에다 꼼짝아 매었습니다. 옷을 어떤 걸 입어도 추워서 견딜 수 없을만큼 몹시 추운 날 밤에, 옷을 다 벗고 한 일고 새빨간 알몸뚱이로 서 있으니, 아무리 무서운 도둑인들 견디는 재주가 무엇이겠습니까?

온 몸은 사시나무 떨 듯 하고, 사지가 꽁꽁 얼어서 손과 발을 마음 대로 놀릴 수가 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엉큼한 도둑은 그래도

"주인 두 양주가 어서 잠만 들어라. 그러면 내 마음 대로 이 집에 물건을 죄다 훔쳐 가리라."

생각하고, 부르르 떨면서 어서 빨리 주인의 잠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으니까 주인 두 양주가 잠이 들었는지 아무 기척이 없고, 오직 코고는 소리만 드르렁드르렁 들렸습니다. 도둑놈은,

"이제야 아마 잠이 들었나 보다."

하고, 곧 방문 앞까지 가서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손 가락에 침칠을 하여 문구멍을 뚫고 가만히 방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런 때에 별안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주인이,

"이 도둑놈아, 맛 좀 보아라."

하고, 와락 뛰어 나왔습니다. 그러니 도둑놈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벌컥 열리는 문에 이마를 부딪혀 피가 줄줄 흐르는 것도 모르고, 그만 놀래서 달아 났습니다.

(그림 • 김 의환)

새로 된 교가들 ③

서울 덕수 국민학교 교가

만고에 뚜렷한 백두산은
한 겨레 마음 속에 살아 있고
이름도 뚜렷이 덕을 쌓는
우리는 조국을 지키련다.
모여라 동무들아.
정성껏 의좋게 씩씩하게.

한 뜰에 씨앗은 자라나서
푸른 하늘 찌르는 수풀되고
날램과 슬기를 이룰려서
우리는 자유의 선봉되자.
배우자 동무들아.
정성껏 의좋게 씩씩하게.

앞길에 할 일은 하도 많고
어깨에 메운 짐 무거우나
뼈 속에 심기신 정신으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이다.
나가자 동무들아.
정성껏 의좋게 씩씩하게.

제 43 회 발표

문제 · 고마운 건?

○연탄국 (서울 방산교 6 년 고 기덕)
○선생님 (서울 방산교 장 갑순)
○가물에 비 (개성 박 옥란)
○우편 배달부 (서울 돈암교 김 봉갑)
○농부 (서울 방산교 5 년 피 희완)

소학생 구락부

▲아협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작문과 동요를 지어 보내고 싶은데, 동요는 몇 자 이상이라야 됩니까? 빨리 알으켜 주세요. (서울 돈암교 5 의 2 방 종구)

△몇 자 이상이라야 된다는 제한은 없습니다. 작문은 몇 자까지라고 제한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도 정리하기에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고, 본래는 글자 수의 제한이란 없습니다. (기자)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아협" 현상 모집 작문은 지금 전 학급에 선전하여 전부 분투 중입니다. 우리 기관지 "형설"은 종이, 인쇄비 등 관계로, 제 2 호부터 休간하고, 지금은 중요한 것은 교실 뒤 칠판에 써 놓고 읽기로 하였습니다. (서울 혜화교 애독자 연맹)

▲여러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소학생"에 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내 주십시오. 또 "이전 참 심상"은 학교나 가정에서나 어간 참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것만을 한데 모아서 책으로 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청계교 4 의 1 김 영훈)

▲여러 선생님 애써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소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격언하고 속담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울 방산교 고 기덕)

△격언은 "입과 몸짓이 이치에 꼭 맞아서 우리들의 하는 것에 매침이 될만한 말"이며, 속담은 "세속이야기"라는 뜻으로 보통 상말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기자)

▲여러 기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요전 좌담회 때 뵙고 오랫동안 못 뵈었습니다. 아협의 마아크는 (동그란 속에 "아협"을 꽃 모양으로 쓴)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서울 혜화교 김 순일)

△아협 마아크는 우리 조선 조형 미술계에서 가장 이름이 높으신 조 벽벽 선생께서 만드신 것인데, 그 뜻은 무궁화 꽃이랍니다. (기자)

▲여러 선생님들 "소학생"이 월간으로 돼서 퍽 바쁘실 줄로 압니다. 저는 월간으로 된다고 하기에 섭섭한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온 것을 보고 퍽 기뻤으며, 쓸데 없는 걱정을 했구나 생각했습니다. 6 월치는 5 월치보다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서울 혜화교 김 송애)

★어떤 아이도 오래잖단에 와야 또 남이 와야 큰 것을 알 수 있지, 자기 자신은 잘 모르는 것과 한가지로, 우리는 "소학생"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 수 없는데, 모두들 많이 컸다고 하신다. 그 말을 듣고 보니 다소 큰 것 같기도 하다.

★며칠 전에 알맞게 내린 비에 농가에서는 모내기에 한창이다. 이대로 나간다면 오는 초가을 벼밭에 나날이 커서 가을에는 틀림없이 많은 열매를 맺어 주리라고 믿는다.

★미·소 공동 위원회는 밝은 하늘 밑 고요한 덕수궁 안에서 자꾸자꾸 커 가고 있다. [illegible]고 애쓰시는 두 나라 대표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동시에, 우리도 서로 힘을 합하여 하루 바삐 민주 통일 정부를 세우도록 힘써야겠다.

★제 2 회 현상 소학생 작문·동요는 각지에서 응모한 작품도 많았거니와 버리기 아까운 작품도 많았었다. 그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골랐는데, 작품 전부를 "소학생" 8 월치에 실릴 예정이다.

(실)

1947 年 7 月 1 日 發行
소학생 · 값 40 원
7 월치 ★ 제 47 호
編輯兼發行人 印刷人 · 主幹 尹 石 重
朝鮮 兒童 文化 協會 發行
서울 鐘路 2街 永保 빌딩
電話 [光]3970番 · 3492番
總發賣 乙酉 文化社
振替 京城 32543番
小賣店 ★ 文章閣 ★ 鐘路 2街

★許可 番號 第 196 號 ★ 許可 日字 1946 年 7 月 5 日 ★ 第 3 種 郵便物 認可 日字 1946 年 4 月 22 日★

寄 No. 02583

절구의 내력

① 사람들이 바위에 구멍을 파고 곡식을 찧던 맨 처음의 절구. ② 는 돌로 만든 공 절구의 시초이며, ③ 차차 지금 조선에서도 쓰는 것과 비슷한 절구통이로 되게 되었다. ④ 두 개의 돌판을 비벼서 가루를 만드는 절구. ⑤ 옛날 유태 사람이 쓰던 것. (맷돌) ⑥ 로마 시대에 있던 것으로 조금 발달되었다. ⑦ 위의 것보다 다른 점이 많고 그만큼 편리하게 되었다. ⑧ 이렇게 돌로만 만들던 절구가 근대에 와서 쇠로 만든 회전 제분기(回轉 製粉機)라는 아주 편리한 것이 생기게 되었다.

★ 새로 나온 "아협" 책들

"학생 조선어 사전"을 꾸미신 이 영철 선생 지음

틀리기 쉬운 말

웃학교에 가실 분은 물론, 일반 학생에게 필요한 국어 참고서

한글 맞춤법은 제법 바르게 펴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잘 한다는 이도 글을 써 나아가다가 두어 자씩 틀리게 쓰는 까닭은 어떤 일일까. 그것은 결코 한글 맞춤법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다. 맞춤법 가운데는 헛갈리기 쉬운 말, 곧잘 틀리기 쉬운 말이 있는데 이것을 똑똑히 알아 두지 않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다. 이 책은 틀리기 쉬운 말을 모조리 골어서 어느 것과 틀리기 쉬운가, 또 어떻게 하면 틀리지 않는가를 또박또박 바쳐 놓았으므로 한글 맞춤법을 익히는 데 다시 없는 보배라 할 수 있다.

값 80 원 (송료 10 원)

조선음악독본

구왕궁 아악부
성 경린 선생 지음

여러 분은 조선 음악을 아십니까? 라디오로 들으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에 자랑할만한 조선 음악의 역사라든지, 조선 음악가 이야기라든지, 또 조선 음악은 어떤 것이며 악기나 악보는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는 분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마는 이때까지 별로 가르쳐 준 일이 없고 관심이 없었던 탓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왕궁 아악부에 계시고, 또 라디오 방송으로 널리 알려지신 성 경린 선생님께 청하여 이 책을 내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림도 많이 들어가서 조선 음악에 대한 상식을 쉬웁게 높일 수 있는 책입니다.

값 100 원 (송료 10 원)

제 3 집
나비의 꿈
값 60 원

소파 동화 독본
두 권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속히 사 보십시오.

제 2 집
울지 않는 종
값 60 원